

# 한국 교과서 속의 칠레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실  
연구원, 박혜정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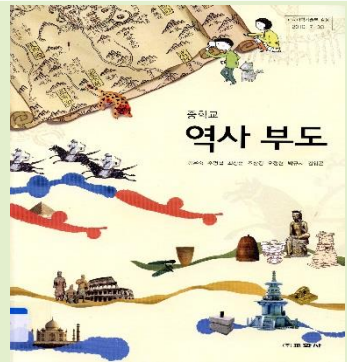
1. 분석에 사용된  
한국 교과서 목록
2. 과목별 사회과 교과서 내  
칠레
3. 요약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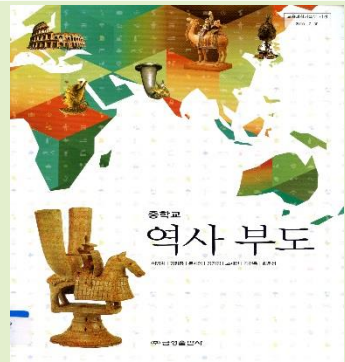
# 1. 분석에 사용된 한국 교과서 목록

## - 중·고등학교 역사부도 (12권)

교학사\_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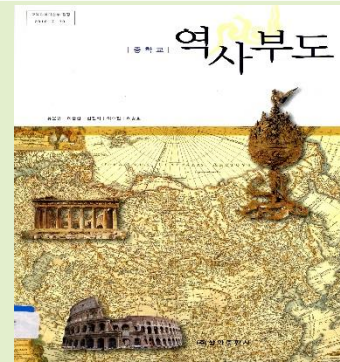
금성\_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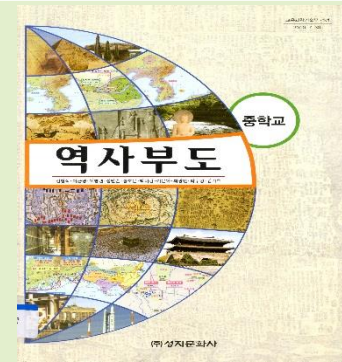
두산동아\_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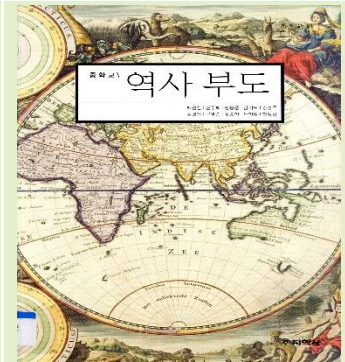
삼화\_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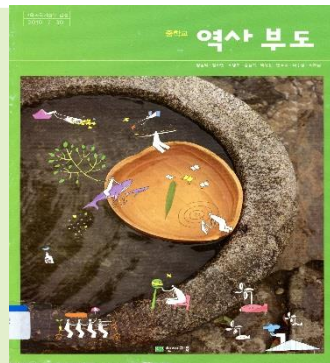
성지\_2011



지학사\_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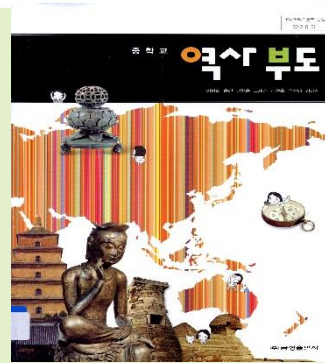
천재\_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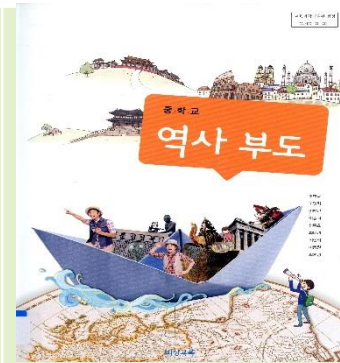
천재\_2011



금성\_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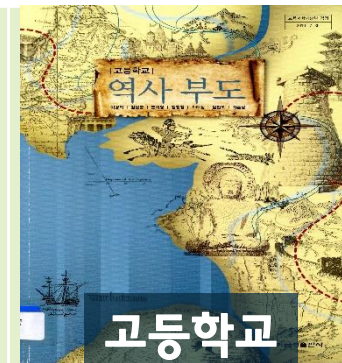
비상\_2013



천재\_2013



금성\_2011





# 1. 분석에 사용된 한국 교과서 목록

## — 고등학교 세계사·세계지리·사회 (12권)

교과사_2013	금성_2013	더텍스트_2013	천재_2013	교과사_2013	천재_2013
미래엔_2011	법문사_2011	비상교육_2011	천재_2011	천재_2011	한솔교육_2011



## 2. 과목별 사회과 교과서 내 칠레

### ▶ 중·고등학교 역사부도

- 라틴아메리카 독립, 스페인 식민지, 경제연합, FTA

### ▶ 고등학교 세계사

- 이스터섬, 라틴아메리카 독립, 스페인 식민지, 경제연합, 주제도(인종, 커피 소비, 영양실조 등)

### ▶ 고등학교 세계지리

- FTA, 문명, 기후, 경제단체, 주제도(인구, 종교, 언어 등)

### ▶ 고등학교 사회

- FTA, 자연재해(화산, 지진 등), 사막화, 경제연합, 주제도(기후, 기온, 산지, 종교 등), 도시경관, 오존층 파괴



# 중·고등학교 역사부도

##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 ✓ 칠레는 1818년 독립함
- ✓ 산 마르틴

## ■ 스페인의 식민 지배

- ✓ 17~18세기를 나타내는 지도에서 스페인의 식민지로 나타남

## ■ 경제 연합

- ✓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 ✓ 라틴아메리카 통합 연합(ALADI)

## ■ 종교

- ✓ 크리스트교

## ■ FTA

- ✓ 2004년 한국과 FTA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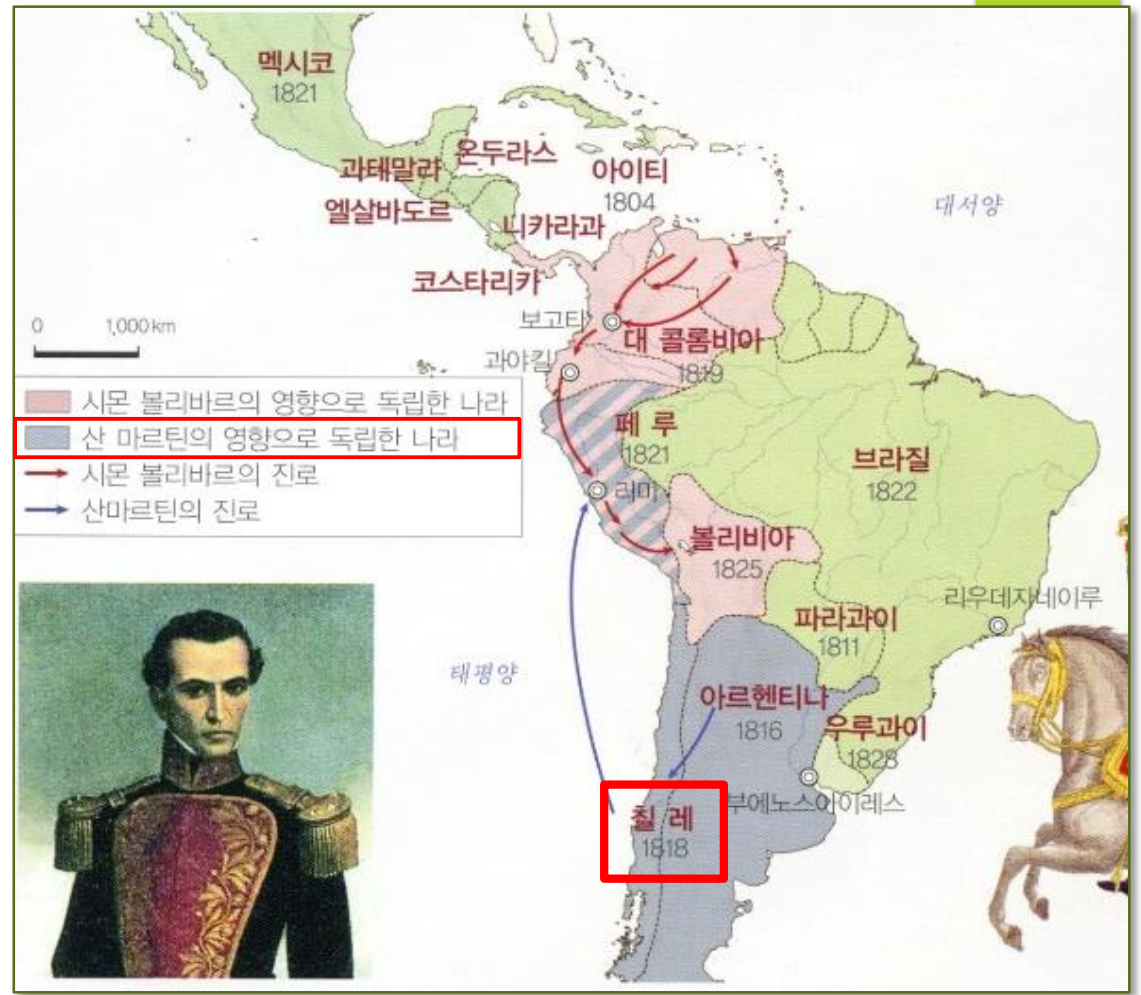


#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 칠레는 1818년 스페인으로 부터 독립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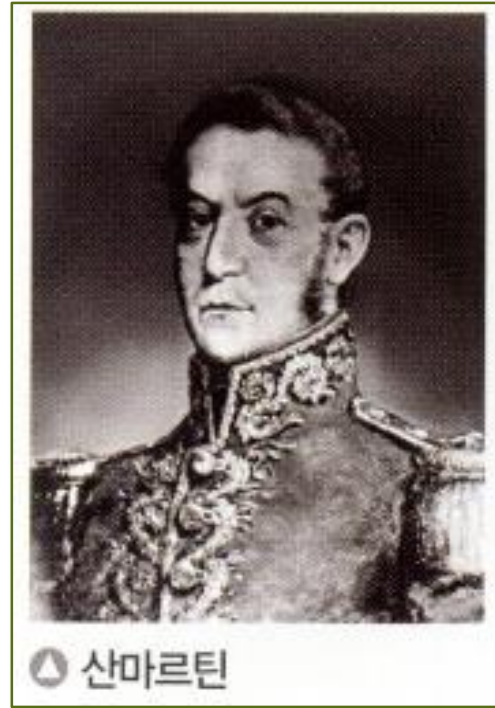
#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 칠레는 산 마르틴의 영향으로 독립한 국가이다.



##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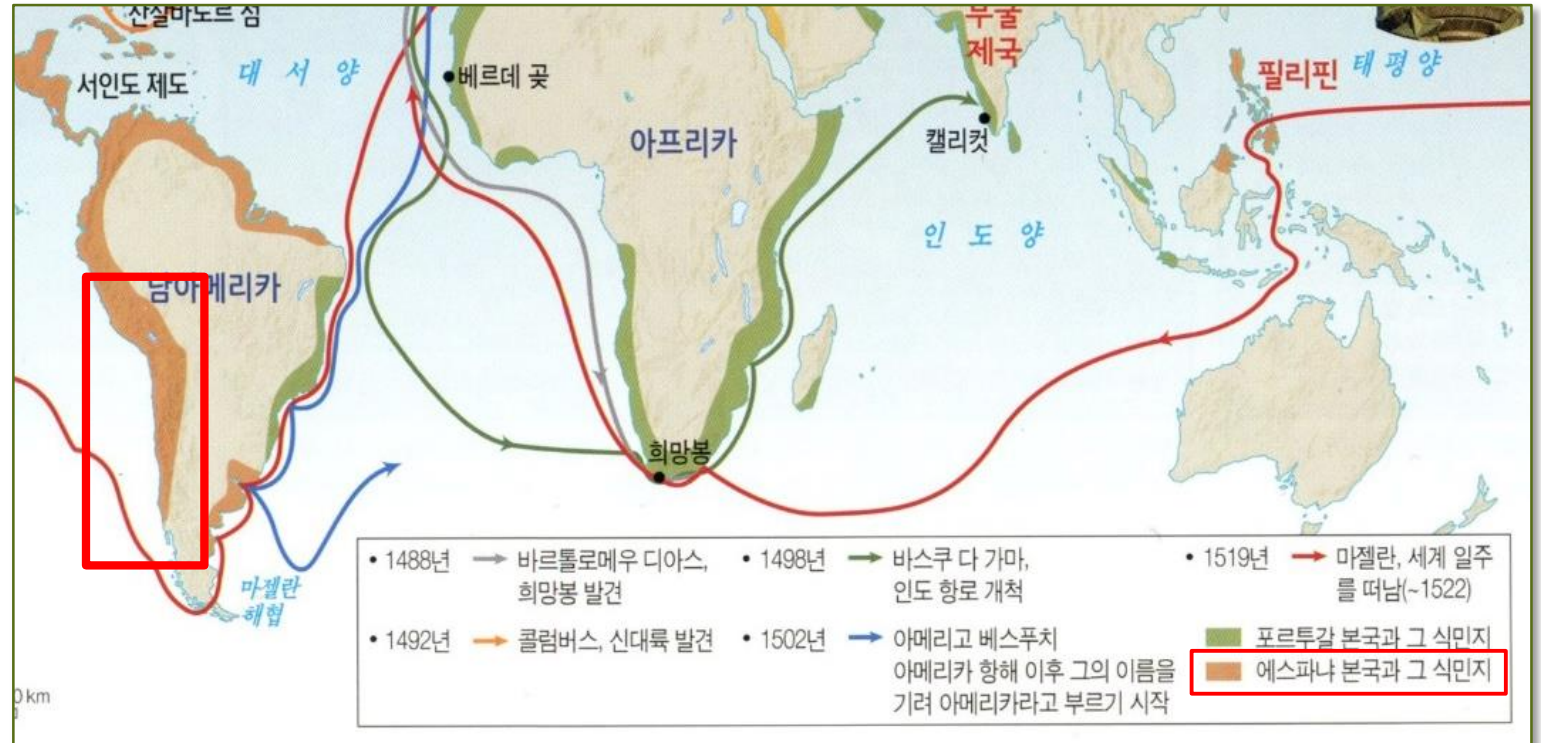


**산마르틴**

- 아르헨티나의 군인·혁명가(1778~1850)
- 에스파냐 식민지였던 칠레, 페루 등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 지도

! 호세 데 산 마르틴(José de San Martín)

# 스페인의 식민 지배





## ■ 경제 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 회의(APEC)	 라틴 아메리카 통합 연합(ALADI)
 유럽 연합(EU)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 칠레는 라틴아메리카 통합 연합(ALADI),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의 회원국이다.

## ■ 종교



## ■ FTA



! 칠레는 2004년 한국과 FTA를 체결했다.



# 고등학교 세계사

## ■ 이스터 섬

##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 ✓ 칠레는 1818년 독립함
- ✓ 산 마르틴

## ■ 스페인의 식민지

- ✓ 신항로 개척 당시 칠레의 일부 지역은 스페인 식민지

## ■ 경제 연합

- ✓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 ✓ 라틴아메리카 통합 연합(ALADI)

## ■ 주제도

- ✓ 인종: 메스티소 > 백인 > 원주민
- ✓ 커피 소비: 하루 1~2잔 소비
- ✓ 영양실조: 영양실조 인구 비율 5% 미만



# ■ 이스터 섬

탐구 활동

### 이스터 섬의 비밀

이스터 섬은 남아메리카 서부 해안에서 3,700km나 떨어진 조그만 섬이다. 인구가 적고 자원도 부족한 이 섬에는 평균 6m의 거대한 석상(모아이)이 800여 개나 있는데, 한때 번성했던 사회의 흔적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낙후한 섬의 상황으로 보아 도저히 섬 주민들이 만든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외계인의 유물이라는 황당한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이 섬의 역사는 우리에게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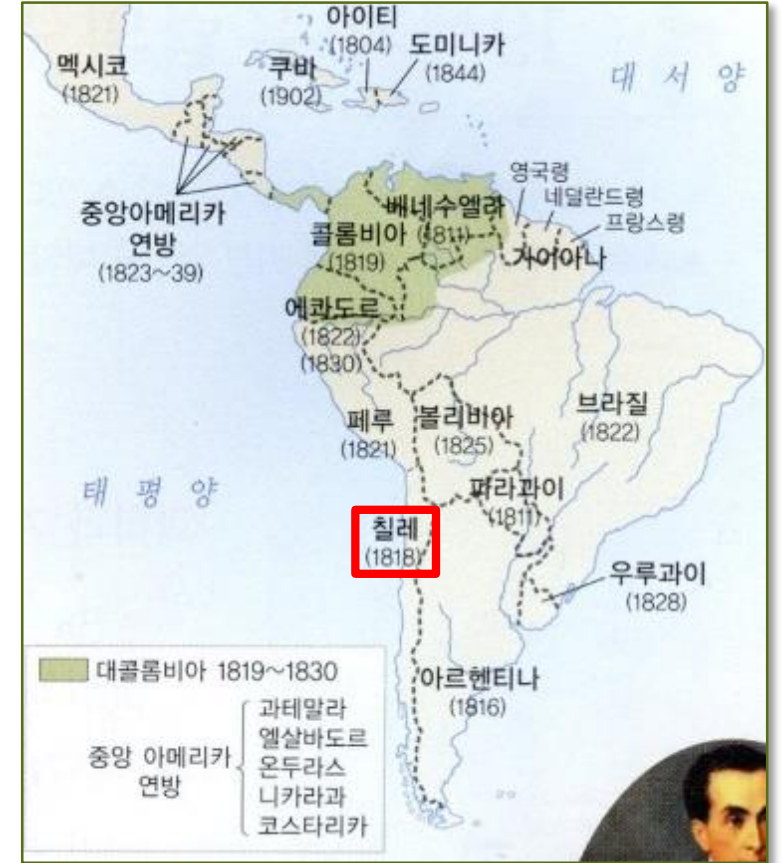
5세기 무렵 이 섬에는 폴리네시아 인이 처음 정착했는데, 그들의 풍속대로 '아후(ahu)'를 건설하였다. 아후는 묘지, 조상 숭배, 죽은 족장을 추도하기 위한 기념물로 이용되는 종교적 장소였다. 원래 식량을 풍족하게 얻을 수 없는 자연환경 때문에 고구마와 닭을 주식으로 삼았는데, 상대적으로 농경에 노동력이 덜 들었기 때문에 섬 주민들은 제례 활동에 경쟁적으로 몰두하였다. 해안 지역에 많은 아후가 건설되었고, 거대한 석상이 세워졌다. 그런데 재료인 석재는 라노라라쿠 산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조각을 한 다음 멀리 해안가로 운반해야 했다. 수레바퀴를 발명하지 못한 주민들이 수십 톤의 돌을 운반하려면 통나무를 깔고 그 위로 돌을 끌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원래 섬에는 울창한 삼림이 있었는데, 나무 벌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바로 석상 운반을 위한 통나무 반입 때문이었다. 씨족 간에 경쟁적으로 종교 활동을 벌여 1600년경에는 나무가 모두 사라졌다. 아후와 석상을 세우는 종교 활동도 불가능해졌고, 전체 주민의 생활도 철저히 몰락해 갔다. 나무가 부족하여 집짓기를 포기하고 동굴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그물이나 카누 등 도구도 만들 수 없게 되었다. 나무가 사라지자 토양이 노출되어 황폐해졌고 농작물 수확도 줄었다. 인구는 급격히 줄었고, 부족한 자원을 둘러싼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식인 풍습까지 생겨났다.

이스터 섬의 주민들은 고립된 지역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나름대로 큰 문화적 성취를 이루었지만,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몰락했던 것이다.

아후

#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 칠레는 1818년 스페인으로 부터 독립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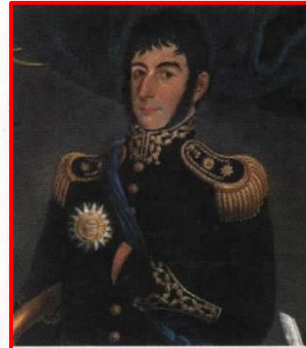
##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 볼리바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를 독립시키다. |

나폴레옹이 에스파냐를 침략하여 왕실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형을 왕으로 삼자, 라틴 아메리카는 독립의 기운이 고조되었다. 크리오요들은 이제 에스파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였는데, 볼리바르가 중심인물이었다.

볼리바르는 의용군을 조직하고, 사령관이 되어 라틴 아메리카 독립 전쟁을 지휘하였다. 초반에는 계속 패배하여 망명 생활을 해야 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에스파냐에 대한 항쟁을 계속하였다. 마침내 볼리바르는 카라카스(베네수엘라), 보고타(콜롬비아), 키토(에콰도르)를 독립시켜 '해방자' 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어 베네수엘라·콜롬비아·에콰도르로 이루어지는 콜롬비아 공화국을 수립하여 대통령이 되었다(1819). 그는 계속해서 페루와 볼리비아의 독립에도 힘을 쏟았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 남부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산마르틴이 독립 전쟁을 주도하며 에스파냐 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여 라플라타(아르헨티나), 산티아고(칠레) 등 여러 지역이 독립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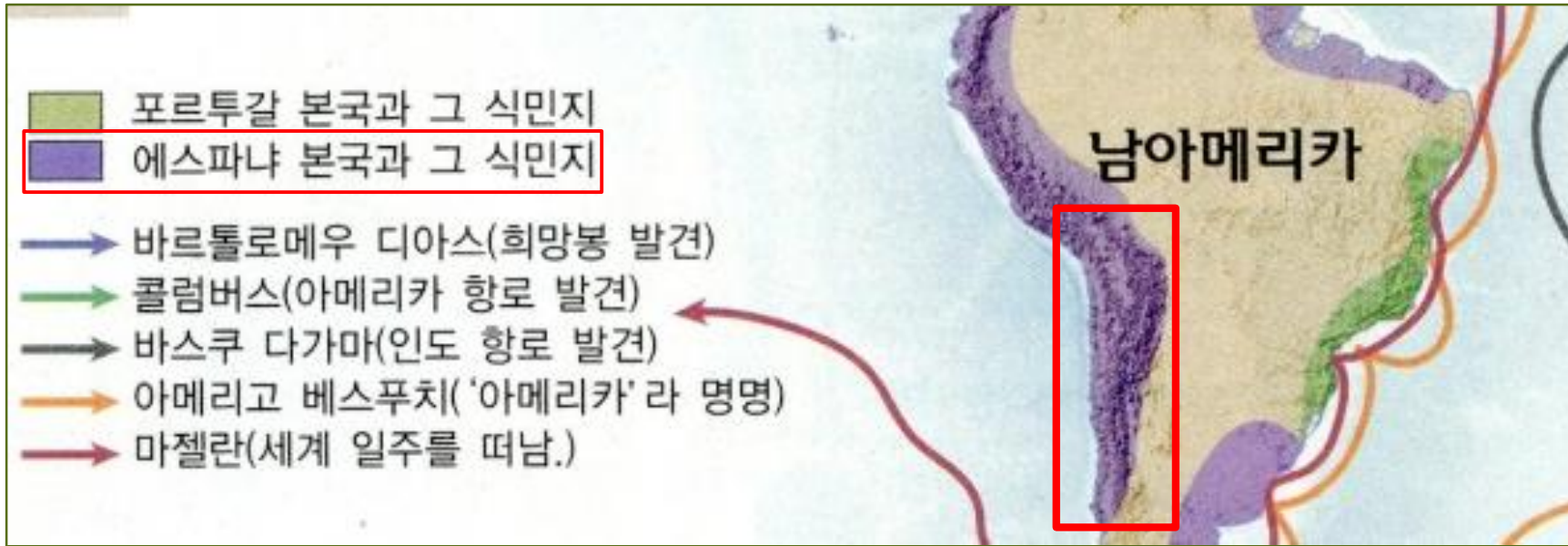


▲ 산마르틴(1778~1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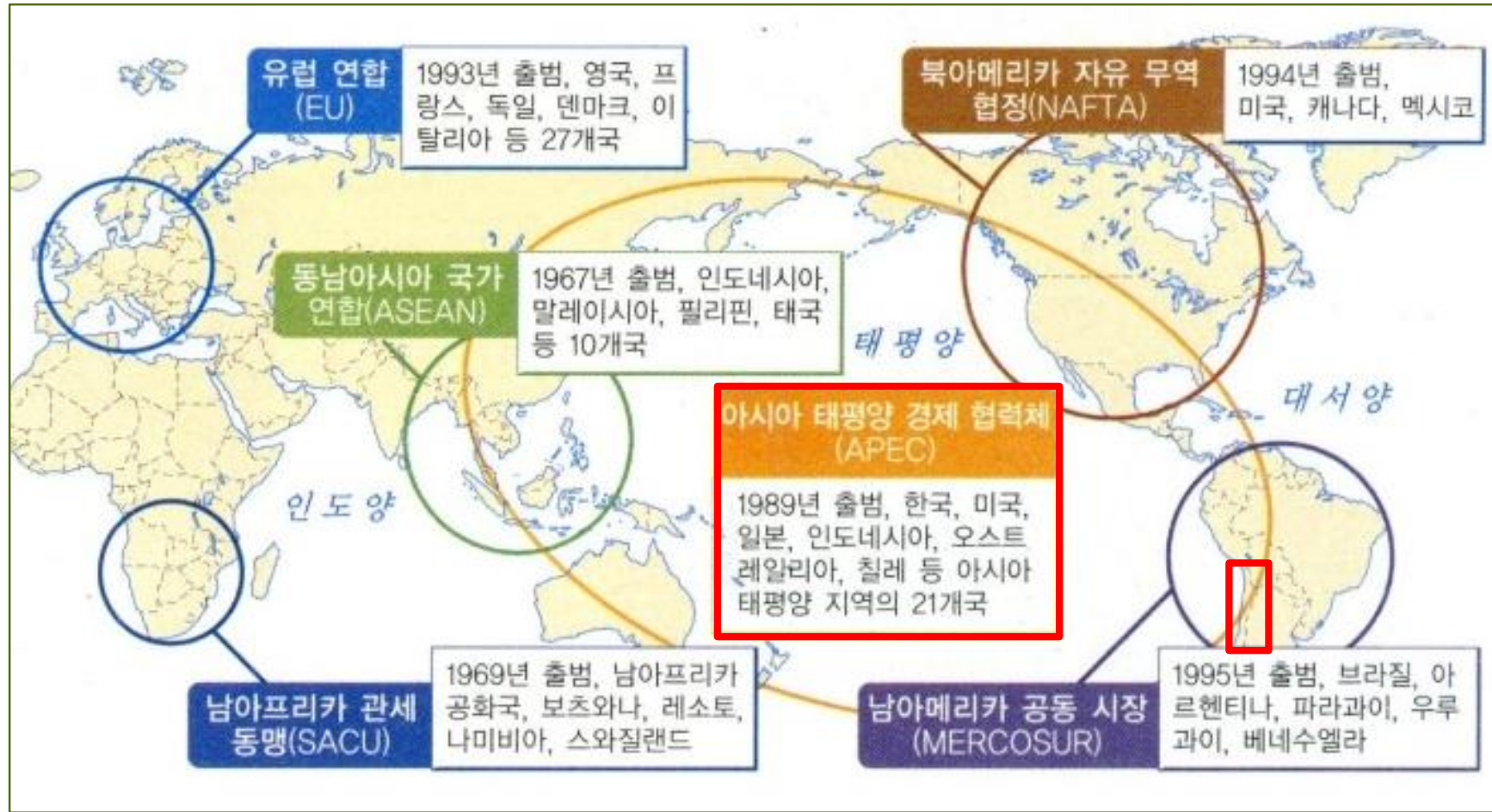


?! 호세 산 마르틴 (José San Martín)

## ■ 스페인의 식민 지배\_신항로 개척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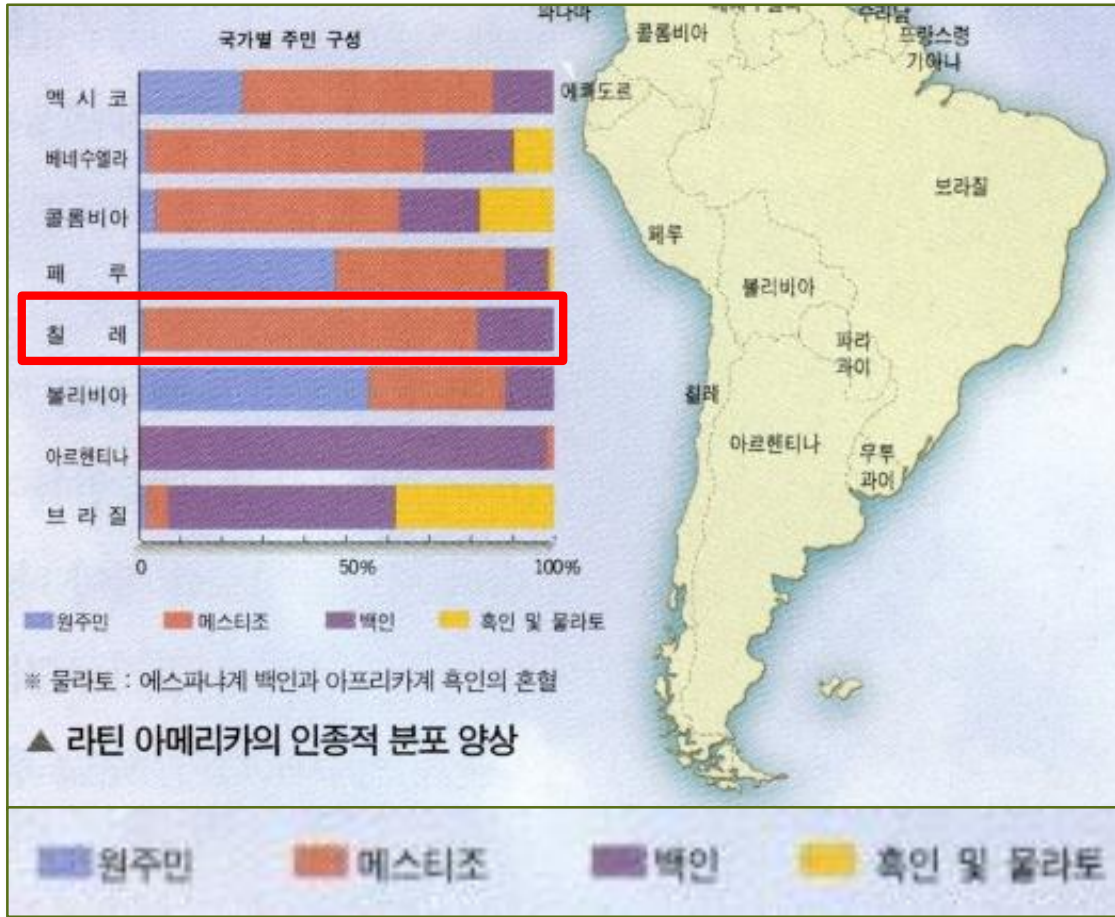
## ■ 경제 연합



? 칠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회원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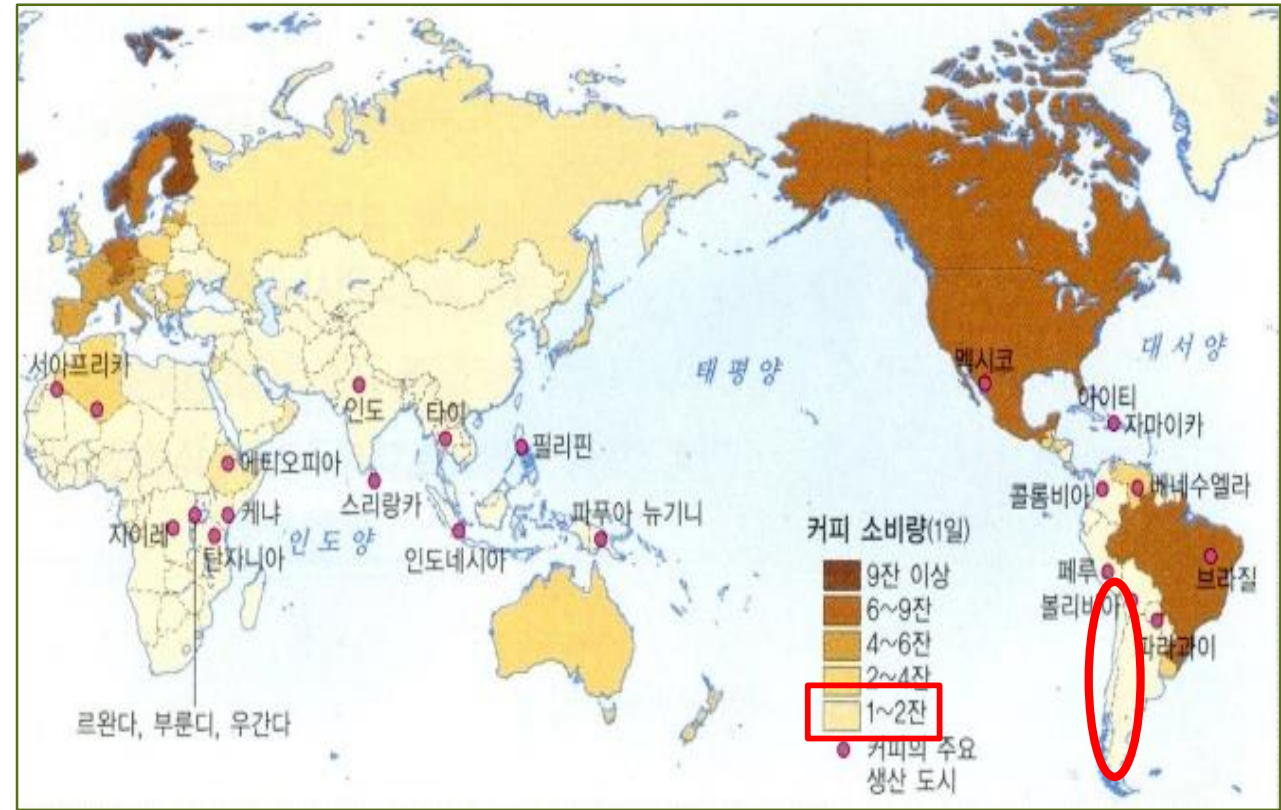


## ■ 주제도\_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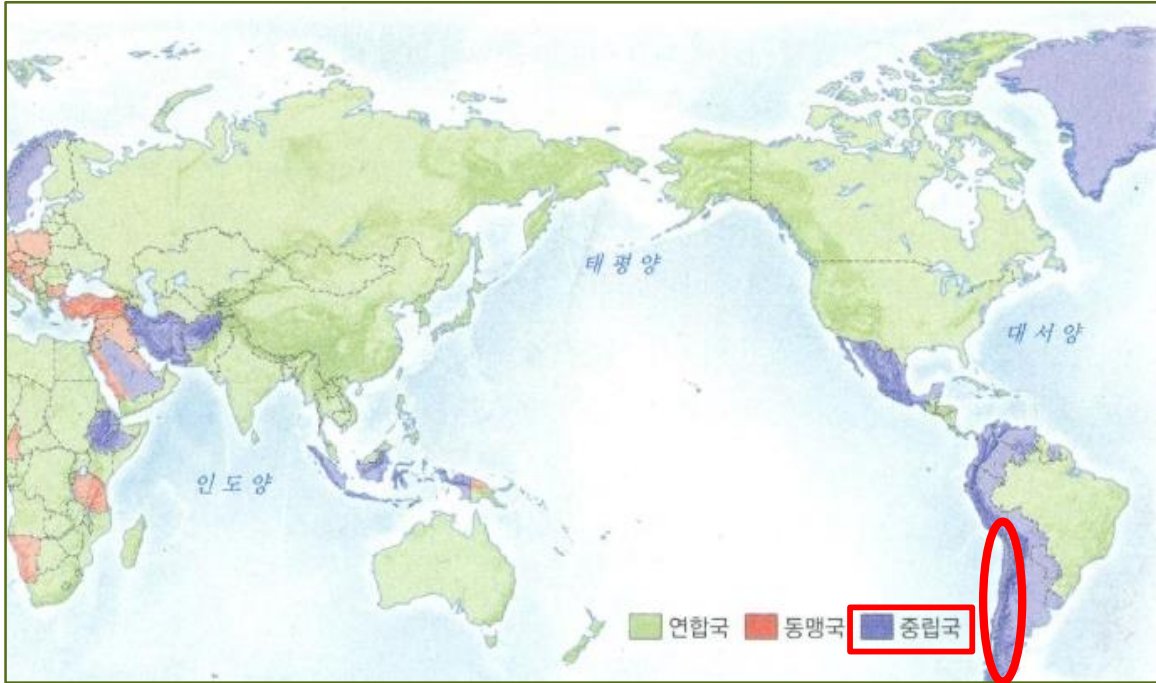
? 메스티소 > 백인 > 원주민

## ■ 주제도\_커피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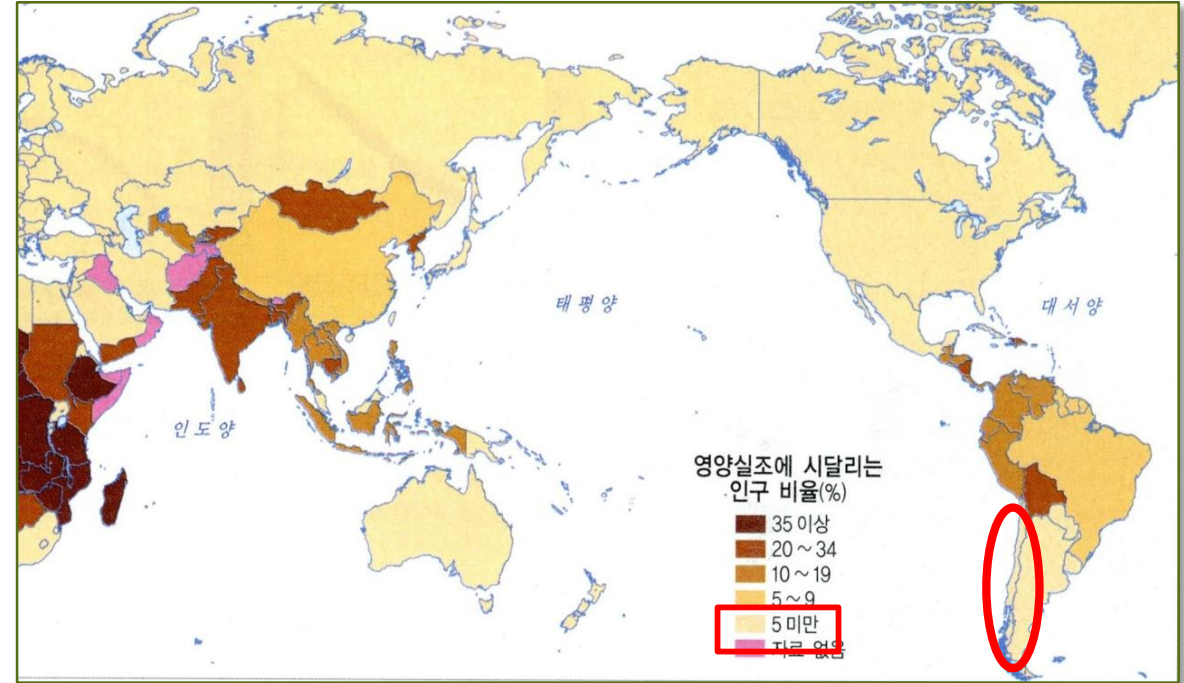
? 1일 커피 소비량은 1~2잔으로 나타나있다.

## ■ 주제도\_세계대전 참전국



!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칠레는 중립국이였다.

## ■ 주제도\_세계의 배고픔 지도



!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인구 비율이 5%미만인 국가로 나타난다.

# 고등학교 세계지리

## ■ FTA

- ✓ 2004년 한국과 FTA 체결

## ■ 문명

- ✓ 인디오 문명, 잉카 제국의 일부

## ■ 기후

- ✓ 온대기후: 포도밭
- ✓ 건조기후: 아타카마 사막

## ■ 경제 단체

- ✓ 남아메리카 국가연합
- ✓ 세계적 수산국

## ■ 주제도

- ✓ 언어: 스페인어, 로망스어
- ✓ 종교: 가톨릭교
- ✓ 민족: 스페인계 혼혈
- ✓ 토지 및 농업:  
경작지, 방목지, 사막 / 지중해식 농업, 혼합 농업
- ✓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30~60%
- ✓ 인터넷 사용률: 10~50%
- ✓ 도시화율: 80% 이상
- ✓ 월드컵 개최국: 1962년
- ✓ 공업지역: 산티아고
- ✓ 인구





# FTA



! 칠레는 한국과의 FTA가 ‘협상 발효/타결’ 된 국가로 나타나 있다.

# 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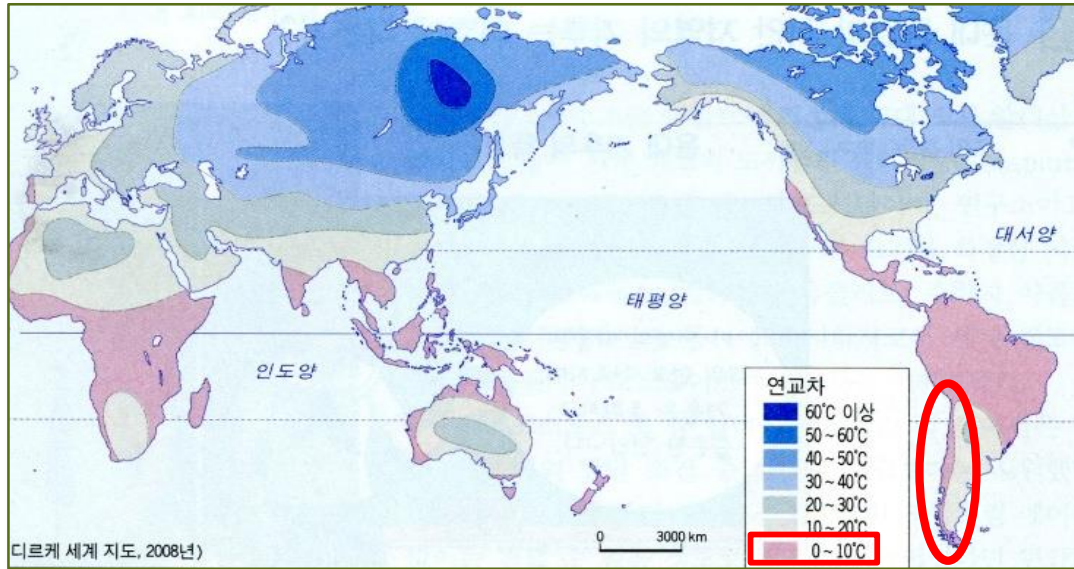
## 도움글 중남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

멕시코, 과테말라, 칠레의 고산 지대에서 번영하였던 인디오 문명은 정착 농경 생활을 하면서 발달된 건축 기술과 고유의 우주관, 종교 등을 가지고 있었다.





## ■ 기후



### 건조 지역의 자원 개발

우유니 염호는 안데스 서쪽 사면의 건조한 산록에 자리 잡고 있다. 볼리비아 남서쪽에 위치하며 칠레 북부 지대 가까이에 있다. 염호에는 소금, 마그네슘, 칼슘, 망간, 리튬 등 많은 광물질이 바닥에 쌓여 있거나 물에 녹아 있다. 그중에서 리튬은 주위 산지로부터 하천에 의해 유입되기 때문에 호수로 끊임없이 공급되며, 수분이 증발하면서 지속적으로 퇴적되고 있다.

볼리비아의 우유니 염호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리튬 이온 전지의 주요 재료인 리튬이 이 호수의 바닥에 다량으로 묻혀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계 최대의 매장 지역이다. 리튬은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휴대 전화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의 전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우리나라의 한국 광업 공사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하여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지역에 있는 염호를 주시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연간 4만 톤의 탄산 리튬이 생산되는데, 염호의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세계 주요 회사들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수요를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볼리비아의 우유니 염호도 장기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칠레나 볼리비아 외에도 앞으로 다른 대륙의 건조 지역에 위치한 염호들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염호를 가진 많은 국가들이 염호의 퇴적물을 다시 조사하여 유용한 광물을 채취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는 미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등 넓은 건조 지역을 가진 국가와 중앙아시아 지역 등이 있다.

### 칠레의 포도밭



! 칠레의 연교차는 0~10°C이며, 온대기후와 건조기후가 혼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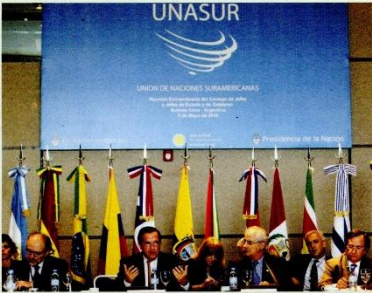
# ■ 경제 단체

세계로 떠나는 여행길 **다사길**

**제2의 유럽 연합! 남아메리카 국가 연합**

여행한 곳 | 남아메리카의 여러 국가

궁금한 점 | 제2의 유럽 연합을 꿈꾸는 남아메리카 국가 연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남아메리카는 파나마를 기준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나누었을 때 남쪽의 대륙을 일컫는 말이다. 남아메리카의 자연환경은 세계에서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아마존 강, 세계에서 가장 긴 안데스 산맥,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헬 폭포 등을 비롯하여 화산, 사막, 빙하, 대평원까지 다양하다. 또한,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고대 문명이 발달하여 독특한 원주민 문화가 남아 있으며,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과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의 문화가 혼합되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가 지역별로 블록화되면서 남아메리카에도 안데스 공동 시장(ANACOM)과 남미 공동 시장(MERCOSUR) 같은 경제 블록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기능이 경제적 협력에 한정되어 있고, 남아메리카가 두 개의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남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들은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경제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아 2004년 12월 8일 '남아메리카 국가 공동체'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2008년 5월 23일에 제2의 유럽 연합을 표방한 '남아메리카 국가 연합(UNASUR)'이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정상 회의에서 출범하였다.

남아메리카 국가 연합은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12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유럽 연합과 마찬가지로 통합된 의회와 중앙은행, 지역 안보 기구 설립 등을 준비하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남아메리카 국가 연합에 속한 국가들의 인구는 약 3억 8400만 명, 국내 총생산은 약 2조 9100억 달러이다. 국내 총생산은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이나 유럽 연합의 1/5 정도에 불과하지만, 인구가 유럽 연합보다 많고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국내 총생산이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날만큼 회원국 간의 경제력 차이가 크고, 정치적으로도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이 있어 이를 성공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국가	면적(km <sup>2</sup> )	인구(백만 명)		도시화율(%)	1인당 국민소득(달러)
		2008년	2025년		
가이아나	214,969	0.7	0.7	36	4,230
베네수엘라	912,046	27.9	35.2	88	6,440
볼리비아	1,098,575	9.5	12.1	63	2,740
브라질	8,547,360	192.4	228.9	83	8,230
수리남	163,270	0.5	0.5	74	4,745
아르헨티나	2,780,388	39.8	46.4	90	13,920
에콰도르	283,560	13.9	17.5	61	4,070
우루과이	177,409	3.3	3.5	93	9,810
<b>칠레</b>	<b>756,626</b>	<b>16.8</b>	<b>19.1</b>	<b>87</b>	<b>11,470</b>
콜롬비아	1,138,906	48.2	58.3	77	7,420
파라과이	406,747	6.5	8.6	57	4,970
페루	1,285,214	29.1	34.1	74	5,830
합계	17,855,070	389.0	465.2	80	8,210

(통계청 자료, 2010년)

국가	면적(km <sup>2</sup> )	인구(백만 명)		도시화율(%)	1인당 국민소득(달러)
		2008년	2025년		
가이아나	214,969	0.7	0.7	36	4,230
베네수엘라	912,046	27.9	35.2	88	6,440
볼리비아	1,098,575	9.5	12.1	63	2,740
브라질	8,547,360	192.4	228.9	83	8,230
수리남	163,270	0.5	0.5	74	4,745
아르헨티나	2,780,388	39.8	46.4	90	13,920
에콰도르	283,560	13.9	17.5	61	4,070
우루과이	177,409	3.3	3.5	93	9,810
<b>칠레</b>	<b>756,626</b>	<b>16.8</b>	<b>19.1</b>	<b>87</b>	<b>11,470</b>
콜롬비아	1,138,906	48.2	58.3	77	7,420
파라과이	406,747	6.5	8.6	57	4,970
페루	1,285,214	29.1	34.1	74	5,830
합계	17,855,070	389.0	465.2	80	8,210



# ■ 경제 단체



## ☞ 칠레의 어업

칠레는 연간 700만 톤의 어획량을 올리는 세계적 수산국으로, 어획량의 상당 부분은 가공되어 수출된다. 우리나라와는 2004년부터 자유 무역 협정이 발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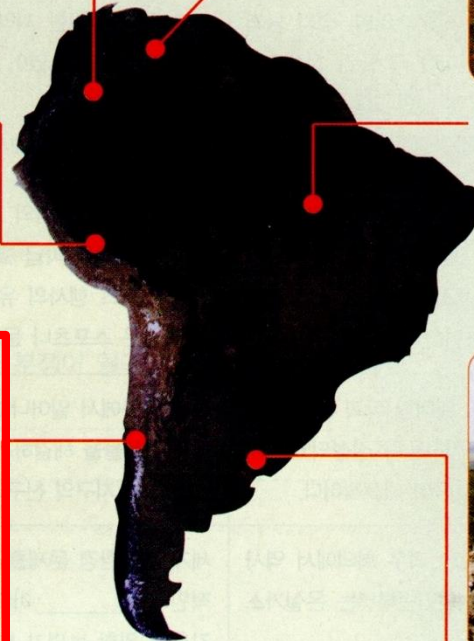
## ☞ 페루와의 자유 무역 협정

페루는 우리나라와의 자유 무역에 대한 협상을 마치고 2010년에 자유 무역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페루의 수출은 대부분 광물과 농산물로 이루어져 있다.



## ☞ 칠레의 어업

칠레는 연간 700만 톤의 어획량을 올리는 세계적 수산국으로, 어획량의 상당 부분은 가공되어 수출된다. 우리나라와는 2004년부터 자유 무역 협정이 발효되었다.



## ☞ 브라질의 콩 농장

브라질의 대단위 콩 농장은 지난 5년간 면적이 65%나 증가했고, 최근에는 브라질 남부와 인접한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지역에서 사바나 지역과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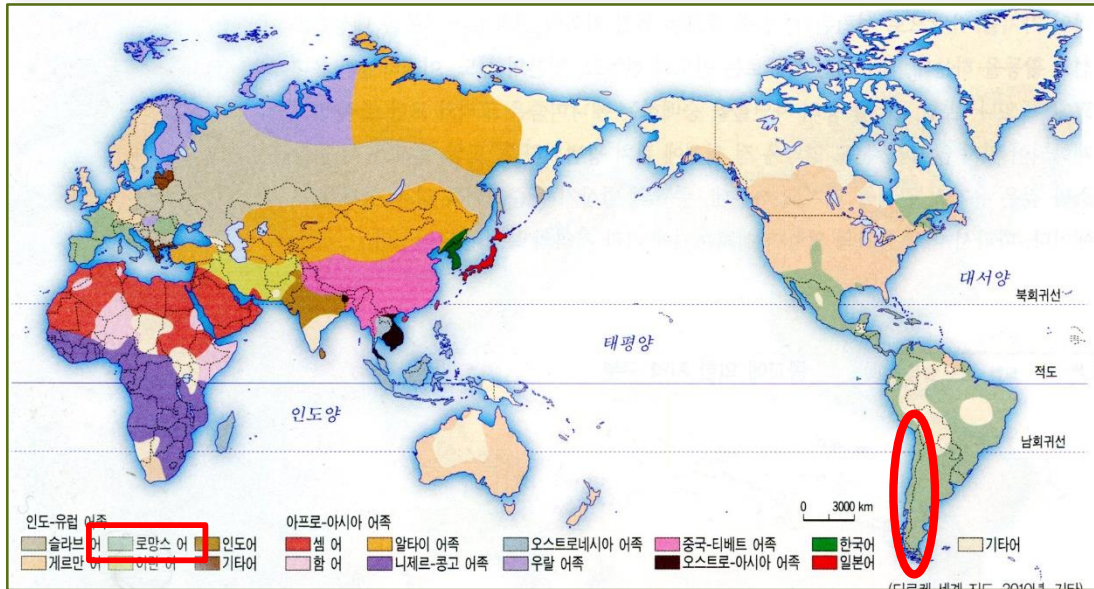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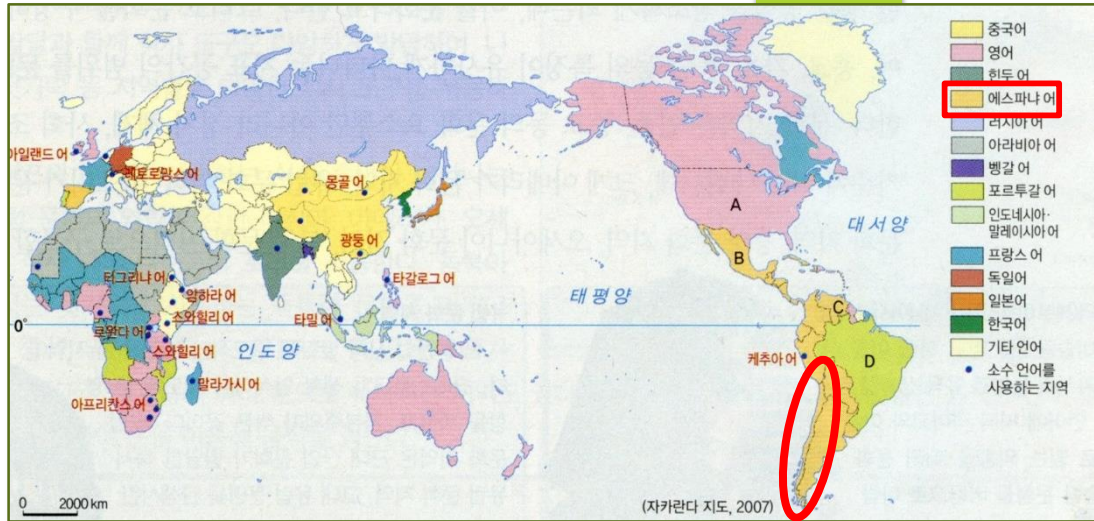


## ☞ 우루과이의 양모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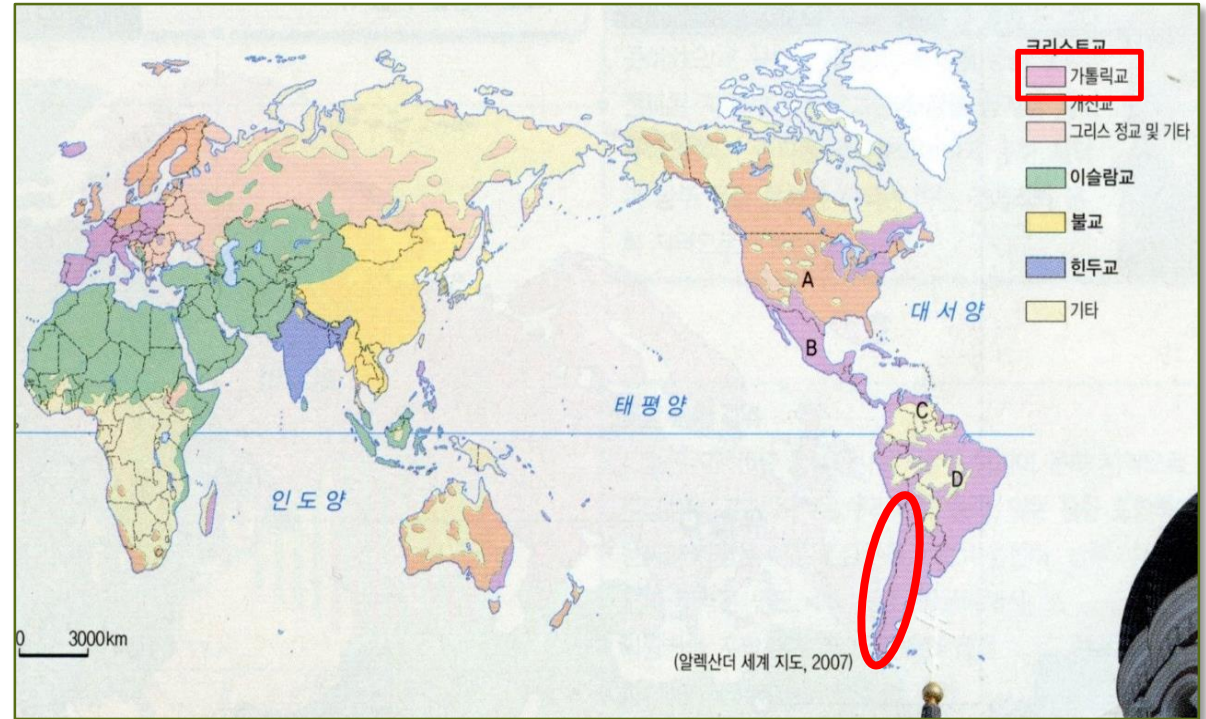
우루과이는 목축에 적합한 지형 및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세계의 주요한 양모 생산 및 수출 국가의 하나이다.



## 주제도\_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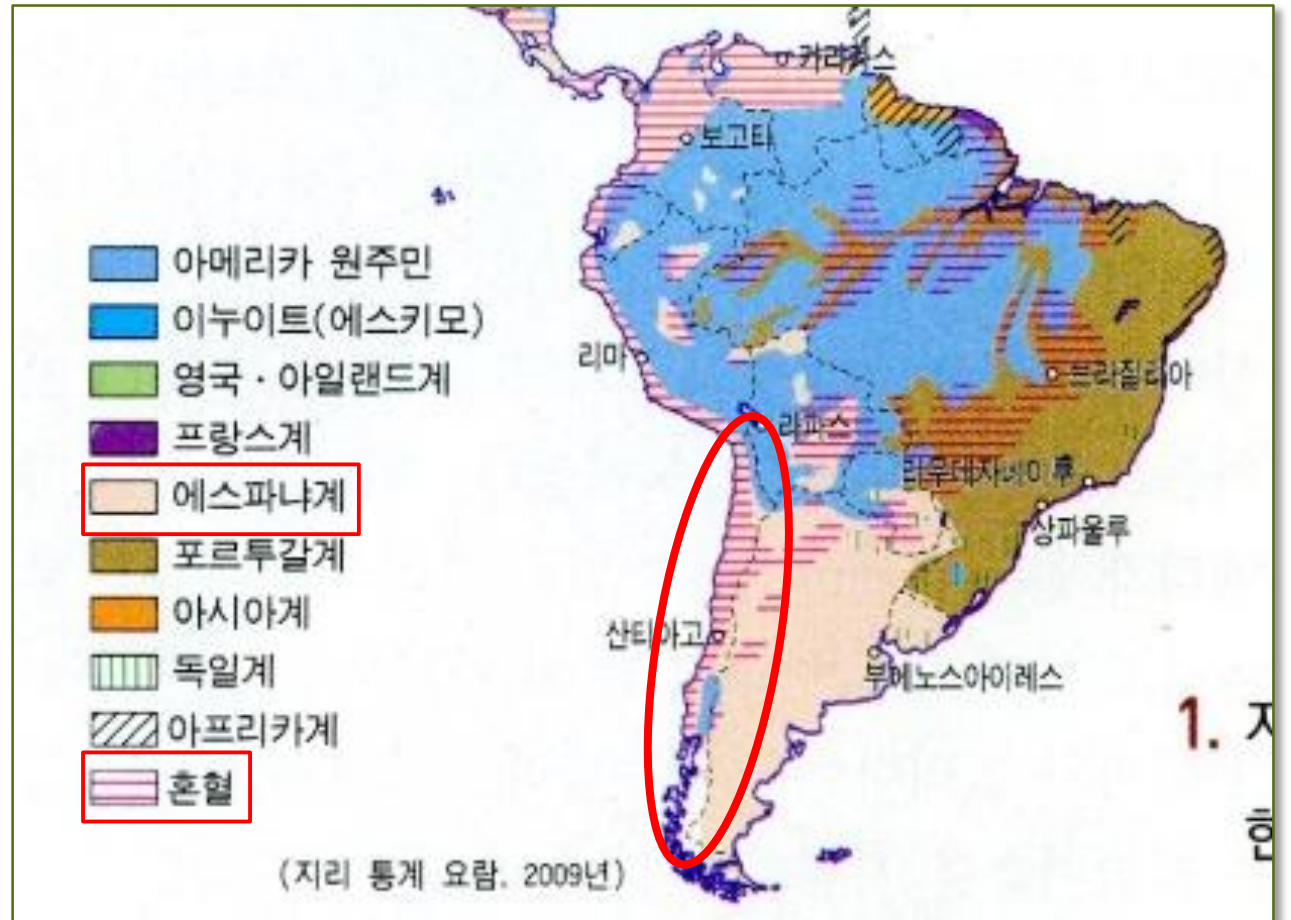


## 주제도\_종교





# 주제도\_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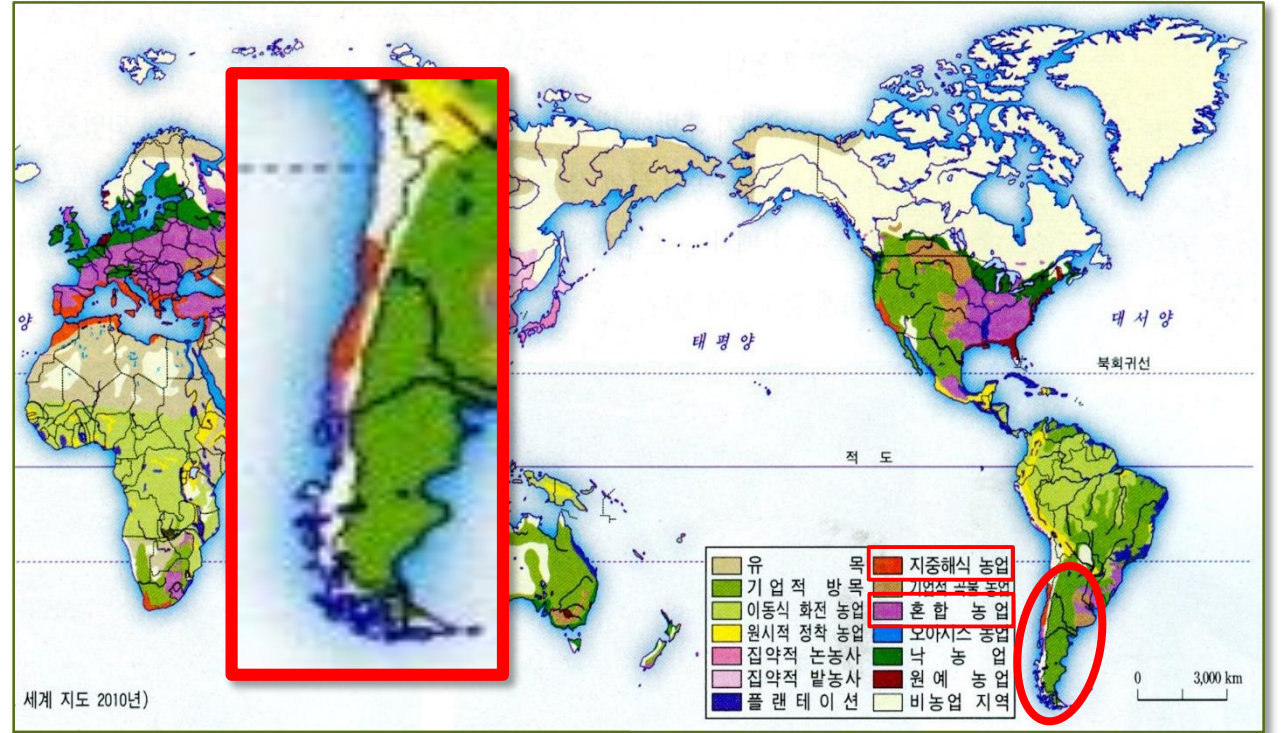
1. 지  
 2. 인



# ■ 주제도\_토지 및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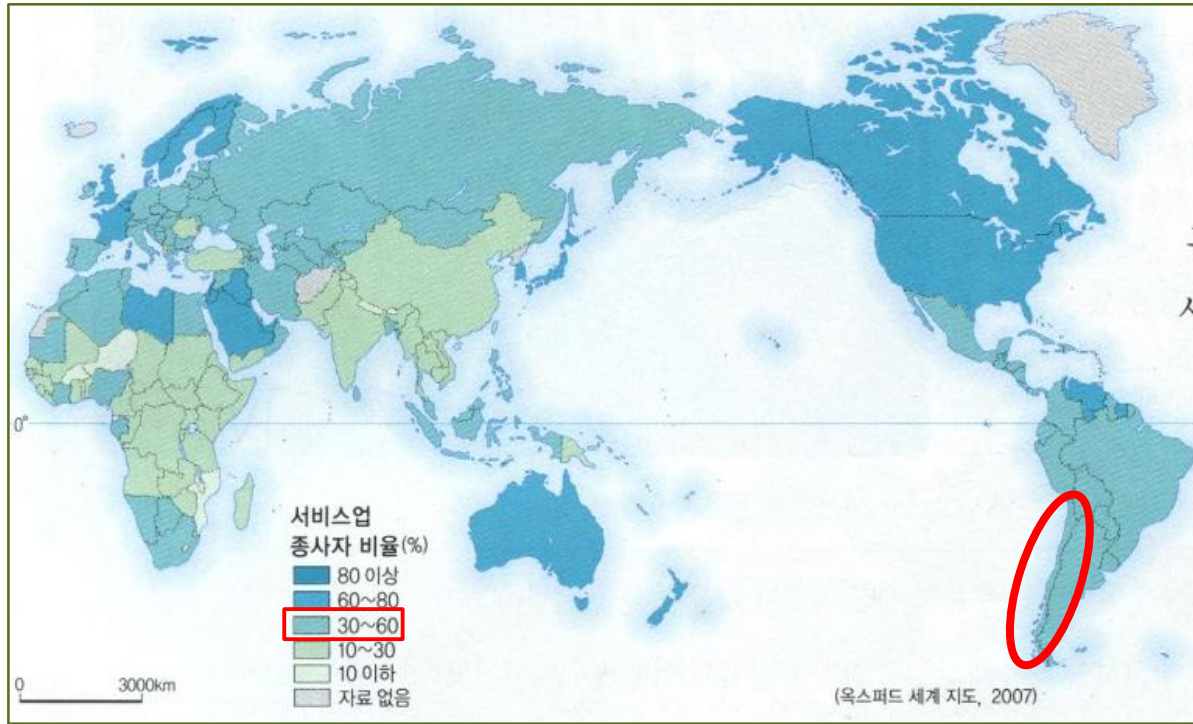


식생과 토지 용도	
	경작지
	방목지
	산림지
	사막
	툰드라, 빙설지, 불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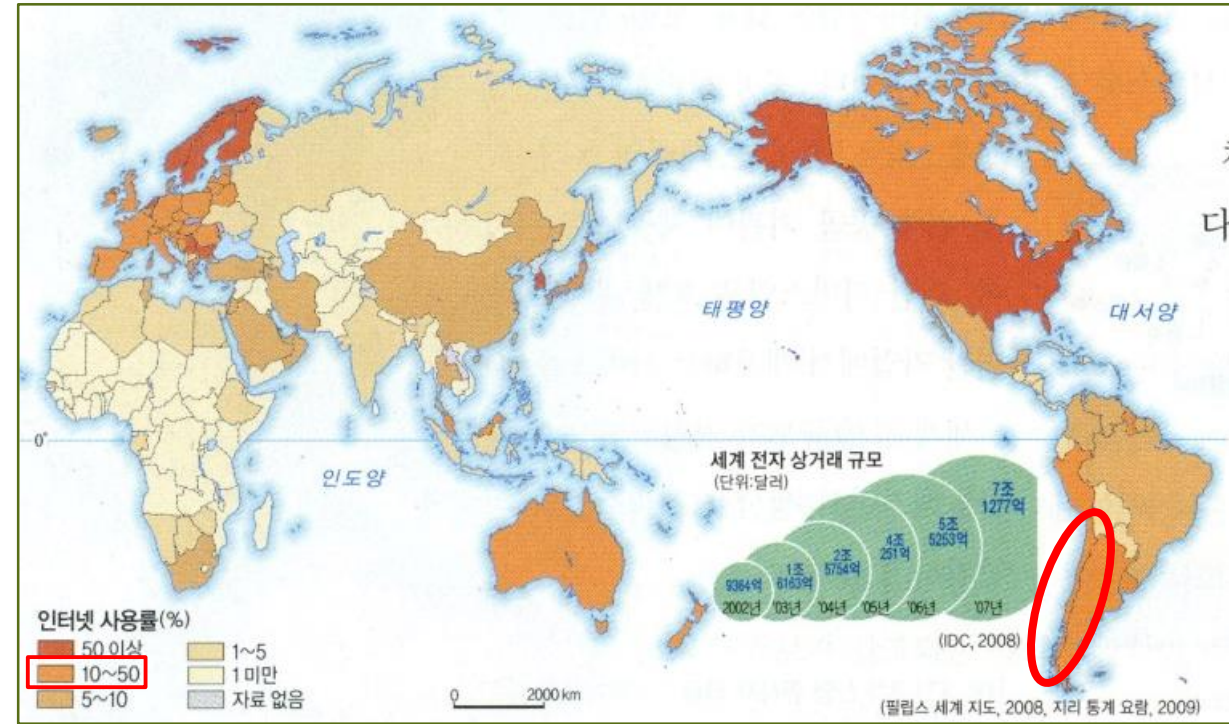


	유		지중해식 농업
	기업적 방목		기업적 곡물 농업
	이동식 화전 농업		혼합 농업
	원시적 정착 농업		오아시스 농업
	집약적 논농사		낙농업
	집약적 밭농사		원예 농업
	플랜테이션		비농업 지역

## ■ 주제도\_서비스업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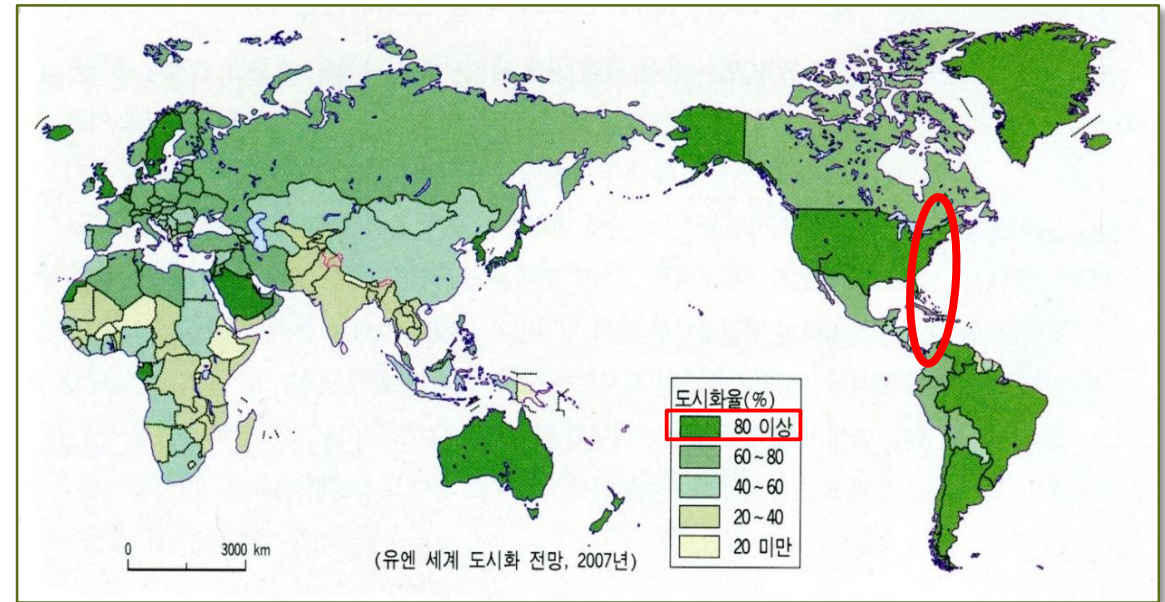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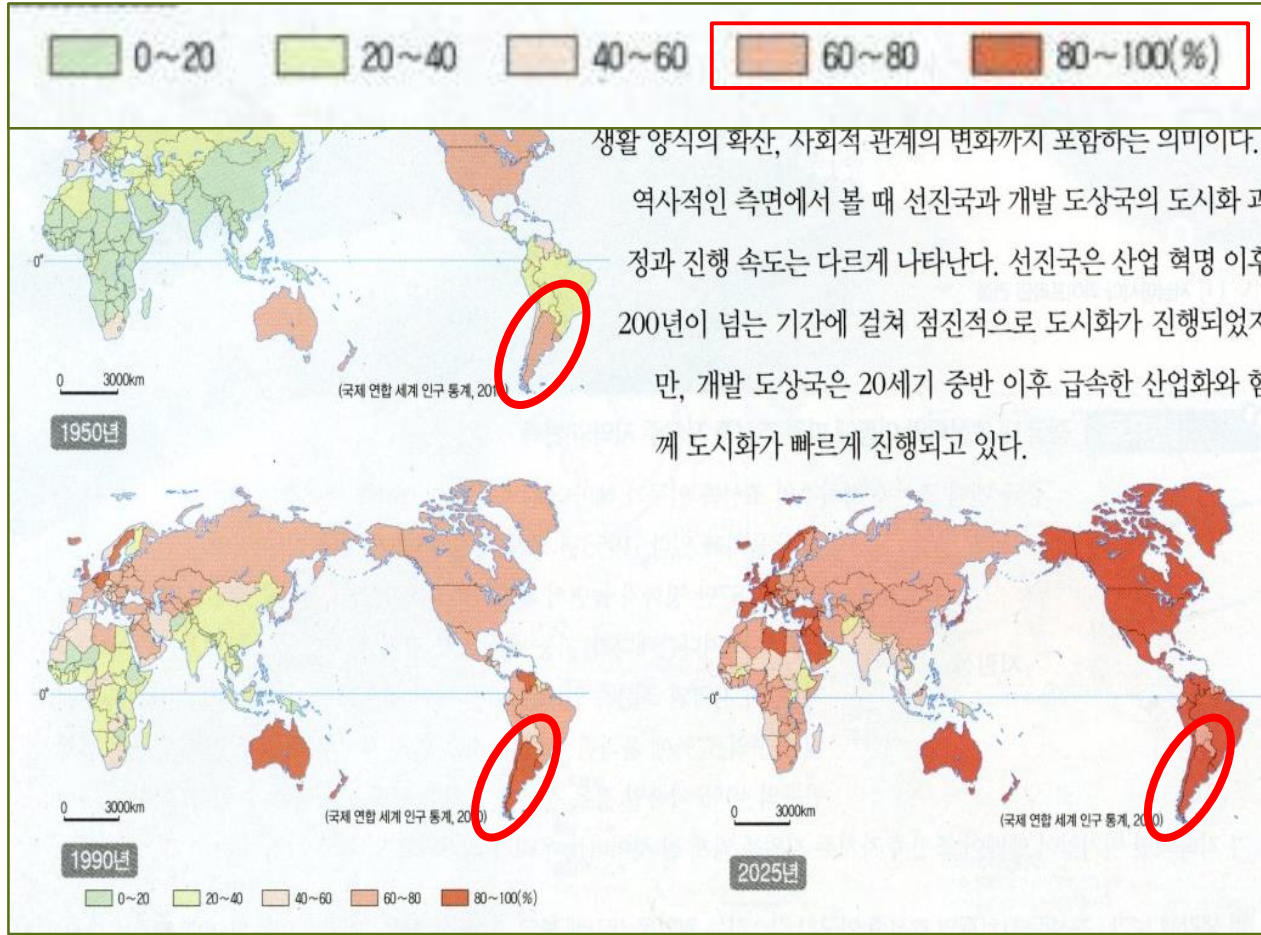


## ■ 주제도\_인터넷 사용률





# 주제도\_도시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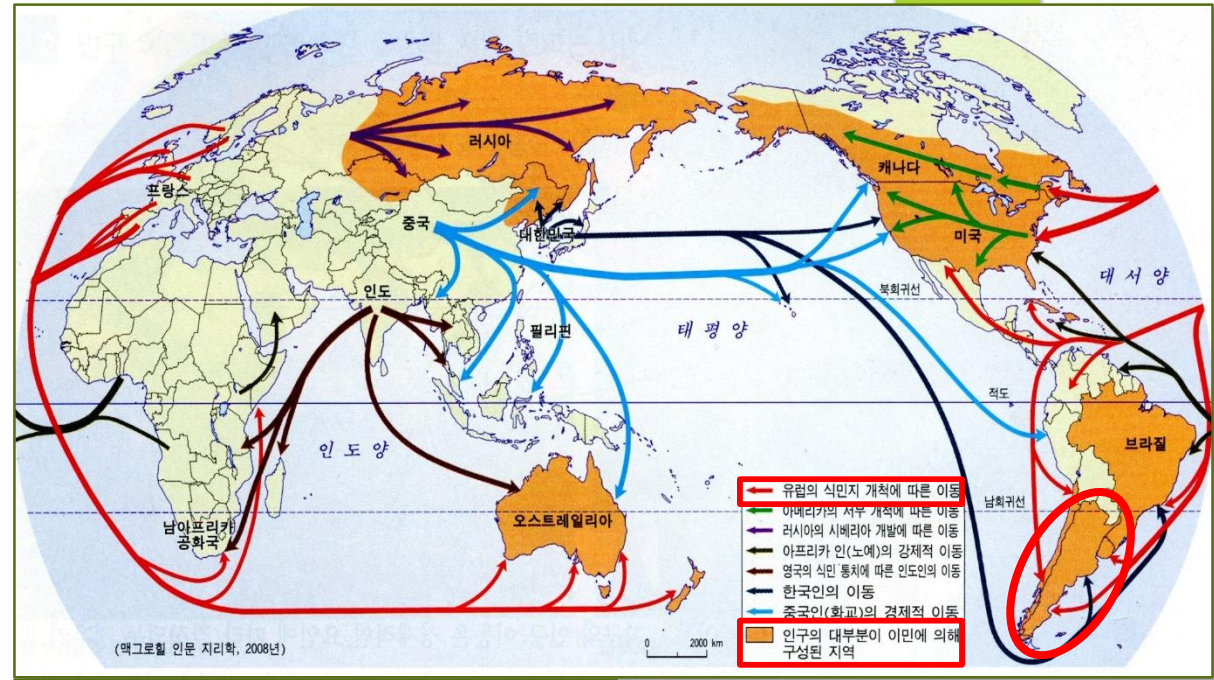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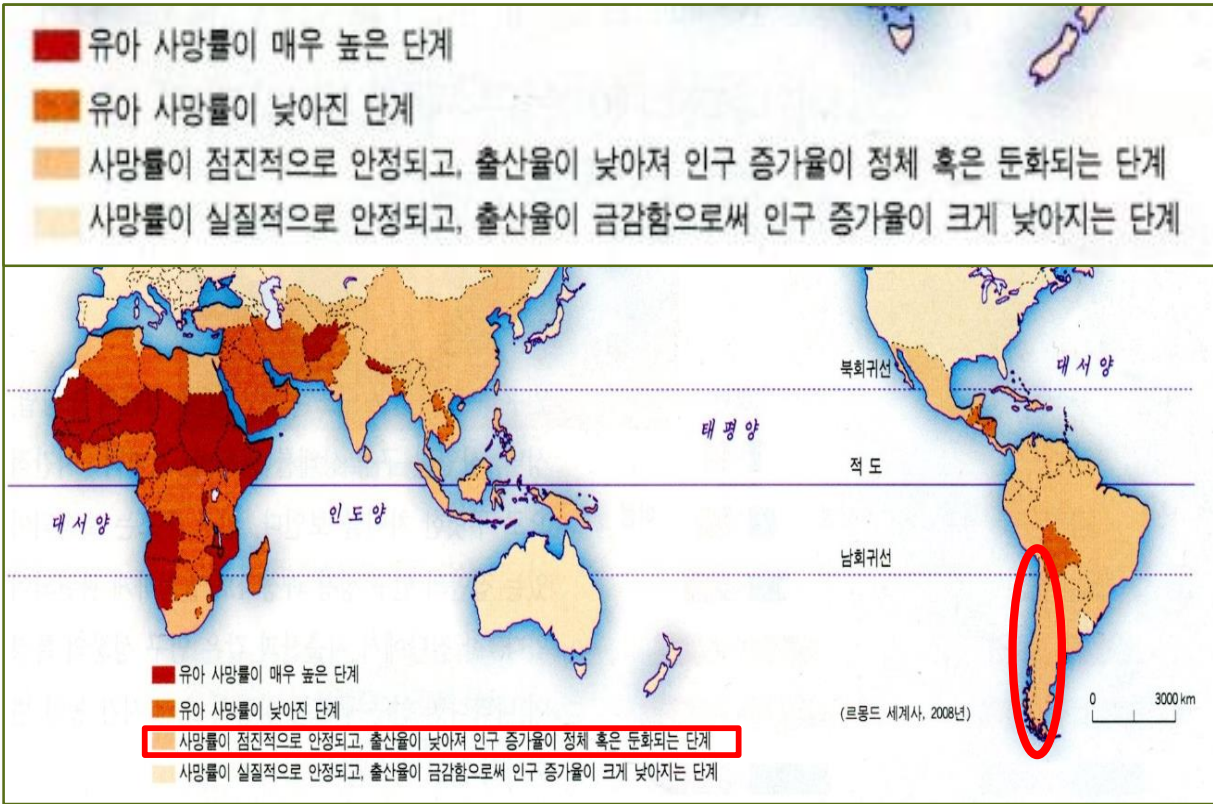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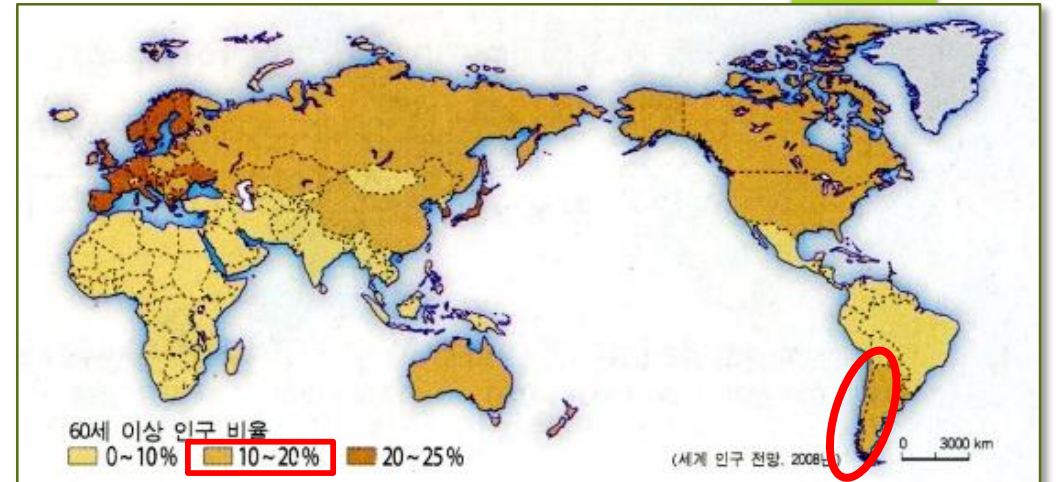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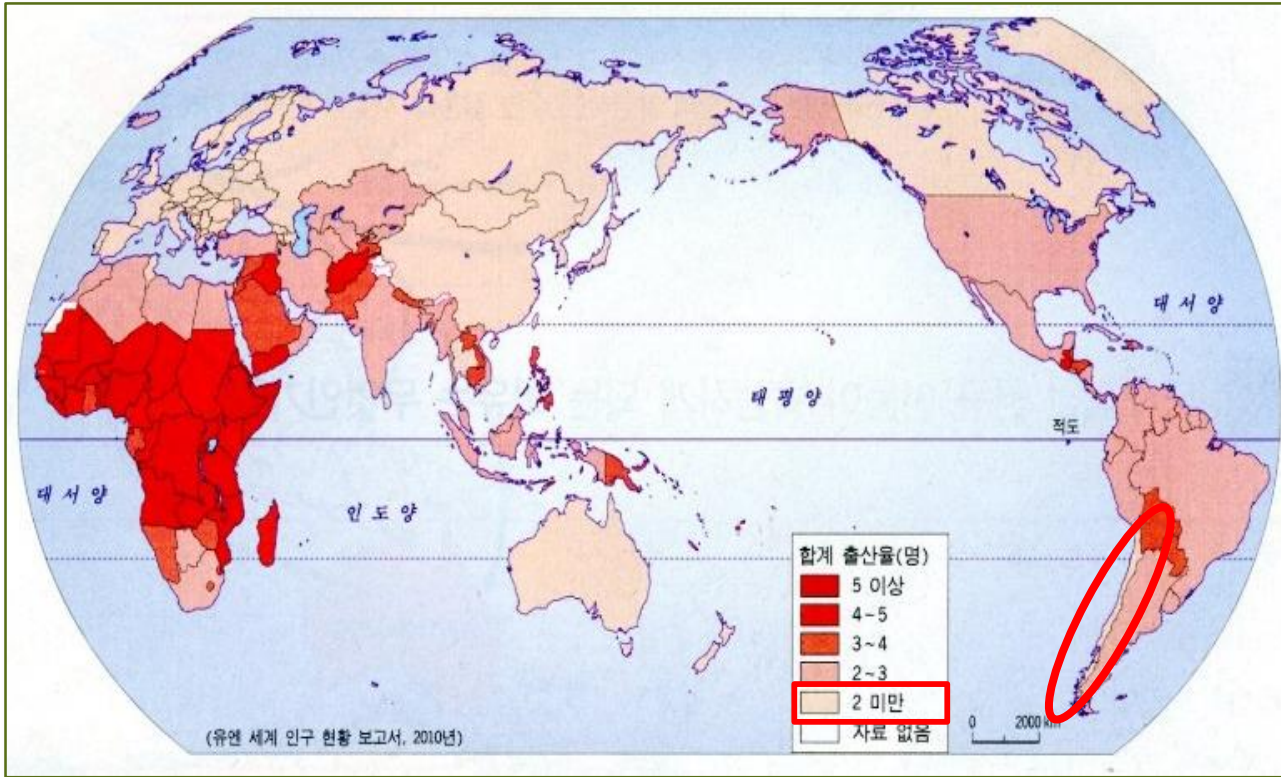
# 주제도\_인구(인구 성장 유형,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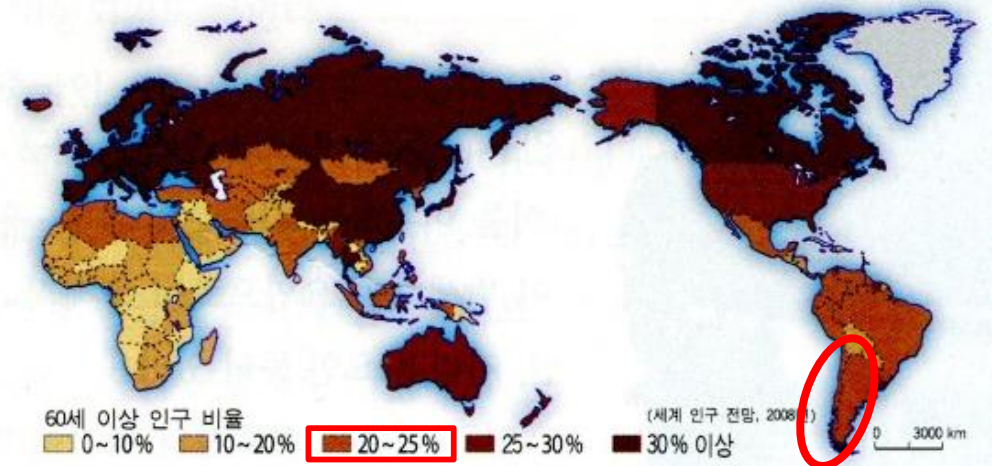
- 유럽의 식민지 개척에 따른 이동
- 아메리카의 서부 개척에 따른 이동
-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에 따른 이동
- 아프리카 인(노예)의 강제적 이동
- 영국의 식민 통치에 따른 인도인의 이동
- 한국인의 이동
- 중국인(화교)의 경제적 이동
- 인구의 대부분이 이민에 의해 구성된 지역



# ■ 주제도\_인구(합계 출산율, 노령인구 비율)



▲ 2005년의 노령 인구 비율



▲ 2050년의 노령 인구 비율

# 고등학교 사회

## ■ FTA

- ✓ 2004년 한국과 FTA 체결

## ■ 자연재해

- ✓ 화산활동 및 분포

## ■ 사막화

- ✓ 아타카마 사막 주변의 사막화 진행

## ■ 경제 연합

- ✓ WTO
- ✓ 남미공동시장(MERCOSUR)
- ✓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 ■ 주제도

- ✓ 기후: 고산기후, 사막기후, 온대기후, 한대기후
- ✓ 기온 및 강수량
- ✓ 산지
- ✓ 종교: 크리스티교
- ✓ 도시화율: 75% 이상
- ✓ 1인당 국내총생산  
: 10,000~19,999달러

## ■ 도시경관

- ✓ 유럽풍의 도시경관: 산티아고

## ■ 오존층 파괴의 피해





# FTA



▲ 비교 우위 갑수는 혼자서 일을 하면 야자열매 2개와 물고기 3마리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을수는 야자열매 5개와 물고기 4마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갑수와 을수가 각각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경우, 갑수는 물고기 6마리, 을수는 야자열매 10개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교환이 이루어지면 혼자서 일할 때보다 갑수는 물고기 1마리를, 을수는 야자열매 1개를 더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갑수는 물고기에, 을수는 야자열매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한다.



▲ 칠레에서 인기 높은 한국산 자동차



▲ 우리나라에 들어온 칠레산 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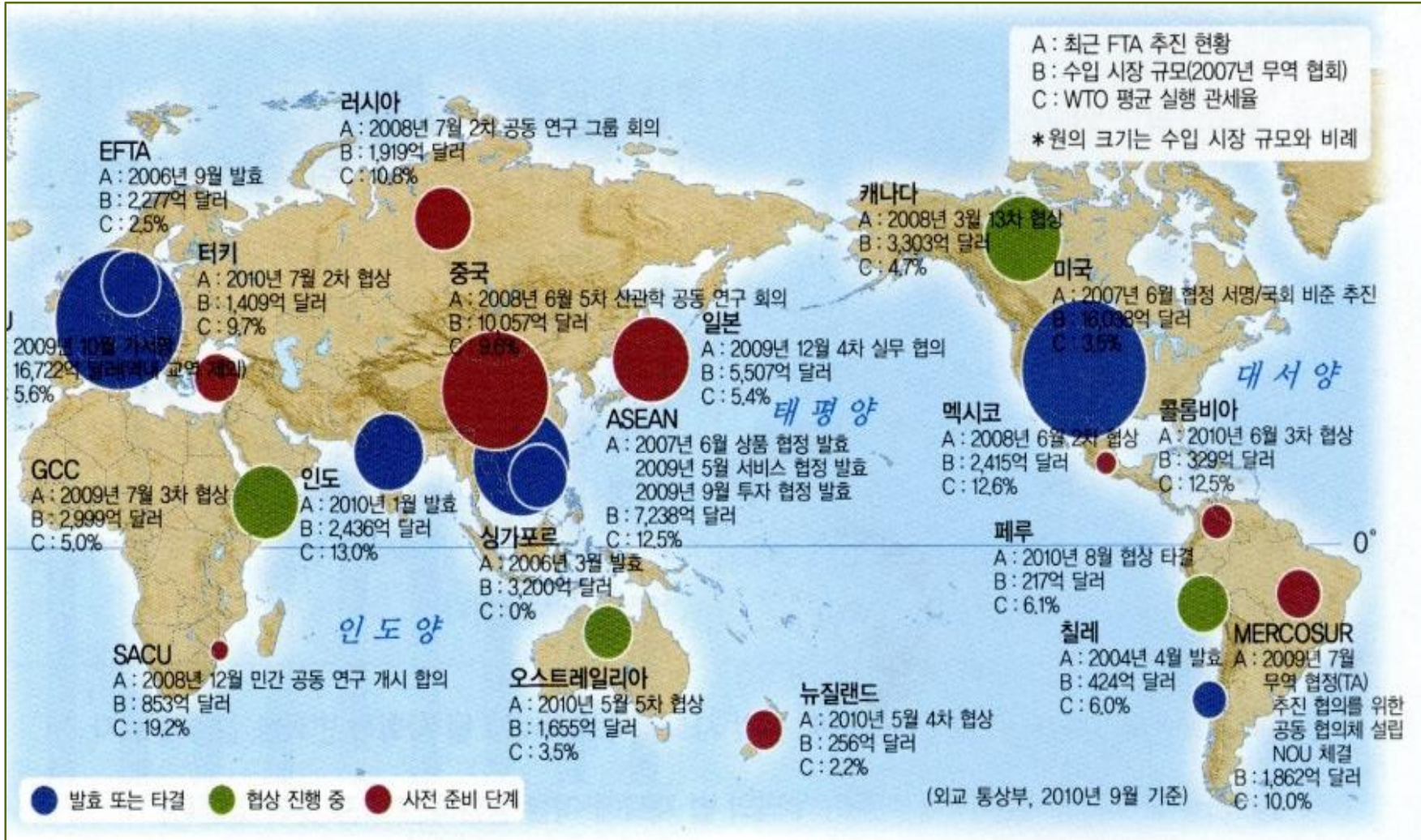
국제 거래의 발생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국제 거래는 수출국, 수입국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예를 들어, 한국이 칠레보다 자동차를 싸게 만들 수 있고 칠레는 한국보다 과일을 싸게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 한국은 자동차를 만들고 칠레는 과일을 생산하여 서로 교환을 하면 칠레의 소비자는 보다 싼 값에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고, 한국의 소비자는 보다 싼 값에 과일을 사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한국이 자동차와 과일을 모두 칠레보다 싸게 생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한국은 칠레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동차를 과일보다 싸게 생산할 수 있다면 한국은 자동차, 칠레는 과일을 각각 생산해서 교환하는 것이 양쪽 나라에 모두 이익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 과일 생산에 투입할 돈과 노동력 등을 자동차 생산에 투입할 수 있고, 칠레의 경우에도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일 생산 쪽으로 돈과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교환하는 것이 더 싼 값에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은 자동차 생산에, 칠레는 과일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비교 우위가 있거나 앞으로 비교 우위가 가능한 산업을 육성하여 다른 나라와 거래함으로써 무역을 통한 이익을 늘려 나가려 하고 있다.



# FTA





## ■ 자연재해\_화산활동



일시	화산
2009년 4월	칠레 라이마 화산
2009년 4월	갈라파고스 군도 라 쿤브레 화산
2009년 3월	미국 알래스카 주의 리다우트 화산
2009년 3월	통가 해저 화산
2009년 2월	일본 아사마 화산
2008년 6월	칠레 짜이텐 화산

▲ 최근 폭발한 주요 화산

## ■ 자연재해\_화산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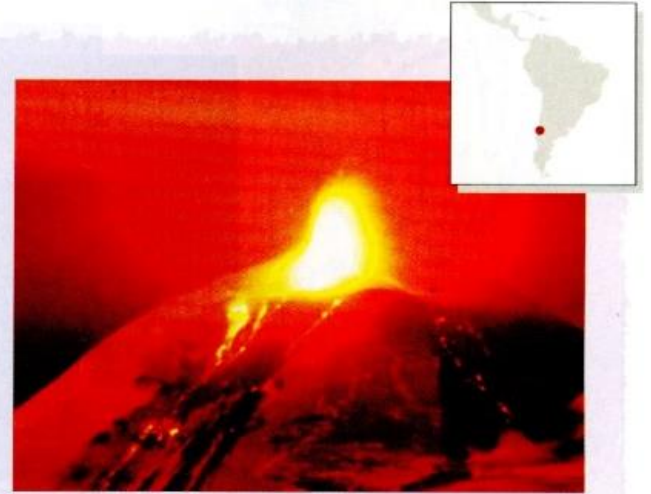


칠레의 차이텐 화산 폭발(2008. 5.) 주변 마을이 화산재로 인해 초토화되었으며, 피해 주민은 4,000명에 이르렀다. 2007년에 1차 분출을 하였고, 2008년에 다시 분출하였다.

### 시사 속으로 라이마 화산의 폭발

● 칠레 남부 지역에 있는 라이마 화산이 폭발하여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일어났다. 화산 폭발로 용암이 분출되면서 길이 1,000 m에 이르는 용암천이 생겼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700 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화산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로, 지난해 1월에도 폭발한 바 있다. 칠레는 전 세계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화산이 많다.

〈○○ 투데이, 2009. 4. 5〉



▲ 라이마 화산의 폭발

※ 생각해 보기 칠레에 화산이 많이 분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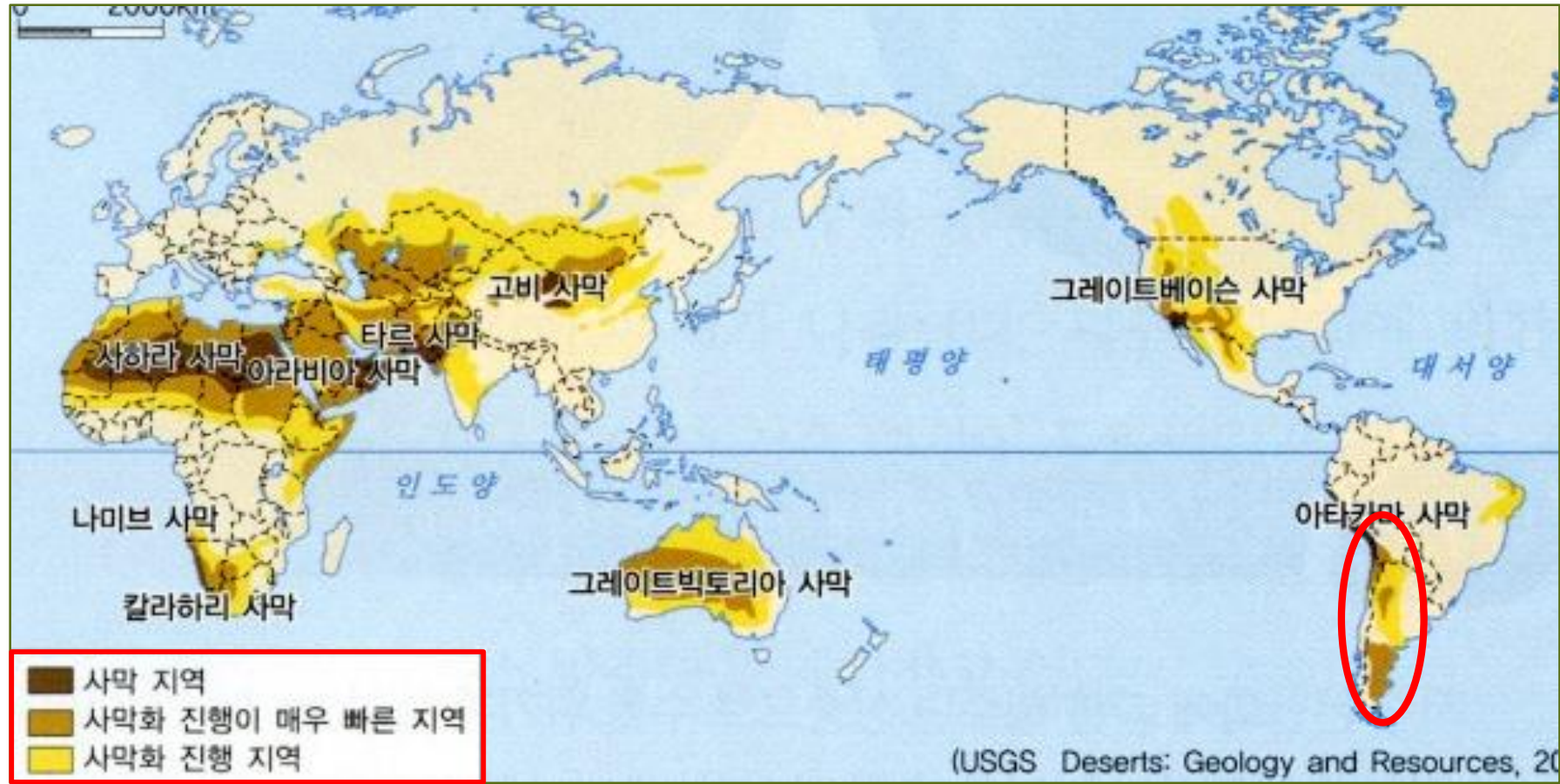


## ■ 자연재해\_화산분포

태평양 주변의 주요 화산 분포



## ■ 사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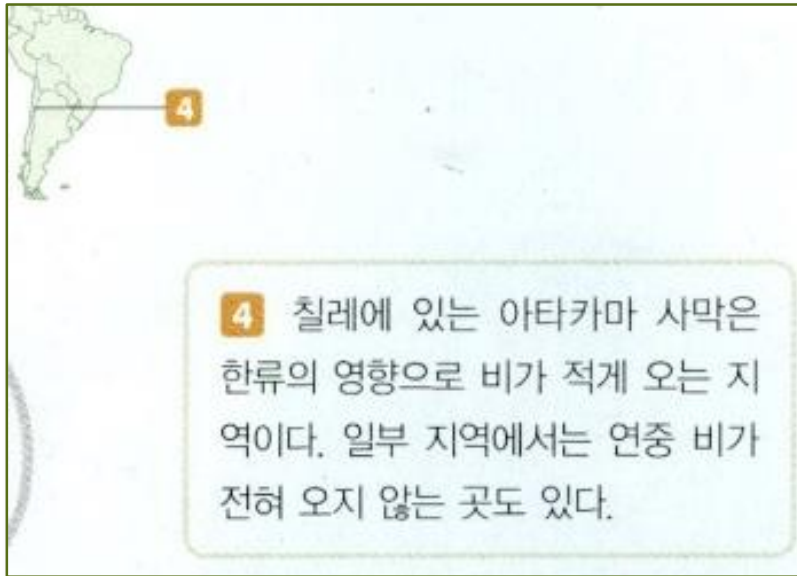





# ■ 경제연합



## ■ 주제도\_기후




**4**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은 한류의 영향으로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중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곳도 있다.



**사례 | 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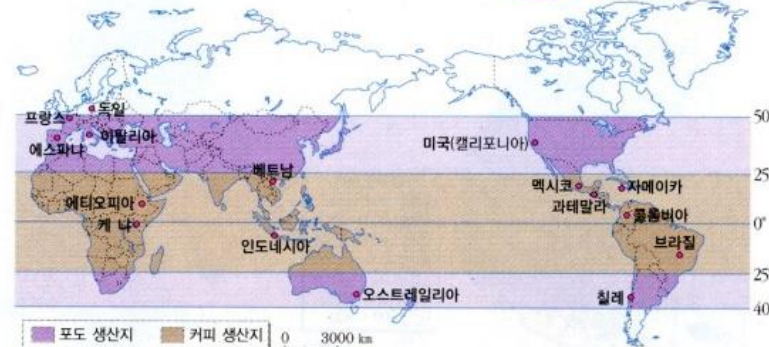
### 한 나라에서 커피 산업과 와인 산업이 같이 발달하지 못하는 이유



커피의 주요 생산지는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25°와 남위 25° 사이이다. 특히 해발 고도 500~1,000 m 지대의 기온 15~25℃ 사이에서 잘 자란다.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등의 고산 지대가 커피의 주요 생산지이다. 커피는 이들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포도는 북위 25°~50°, 남위 25°~40°에서 주로 재배된다. 포도는 열대 기후 지역에서도 재배되지만 와인을 만들기에는 너무 달아서 적합하지 않다. 적절한 일교차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재배되는 포도가 와인을 만들기

에 적합하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이탈리아, 프랑스, 에스파냐, 독일, 미국(캘리포니아) 등과 남반구에서는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포도 재배가 활발하며, 이 지역에서 와인 산업이 발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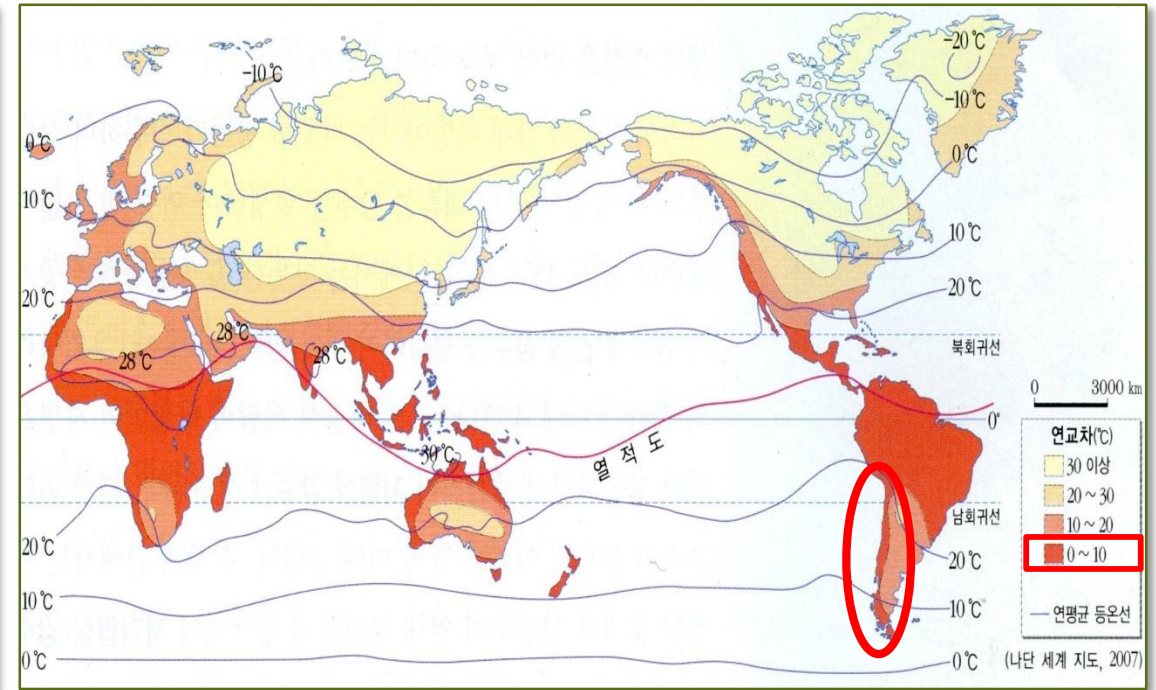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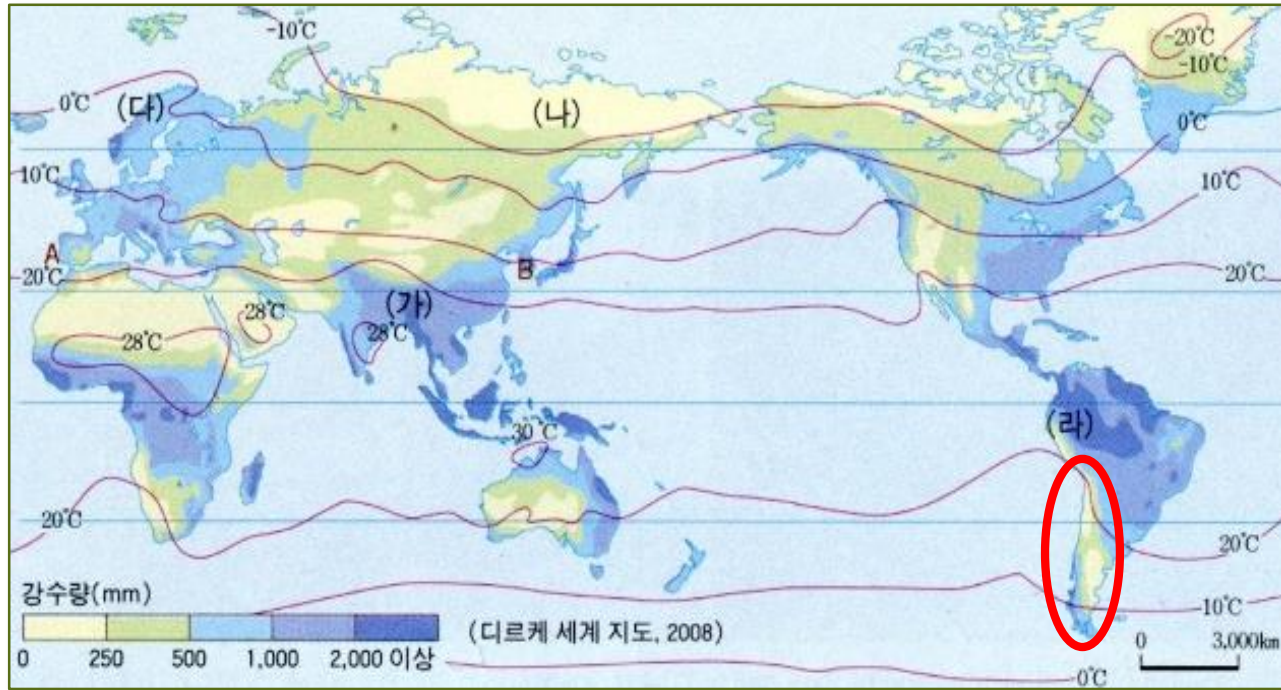


**커피와 포도 생산 지역**

이와 같이 커피와 포도가 재배되는 기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커피 산업과 와인 산업이 한 지역에서 발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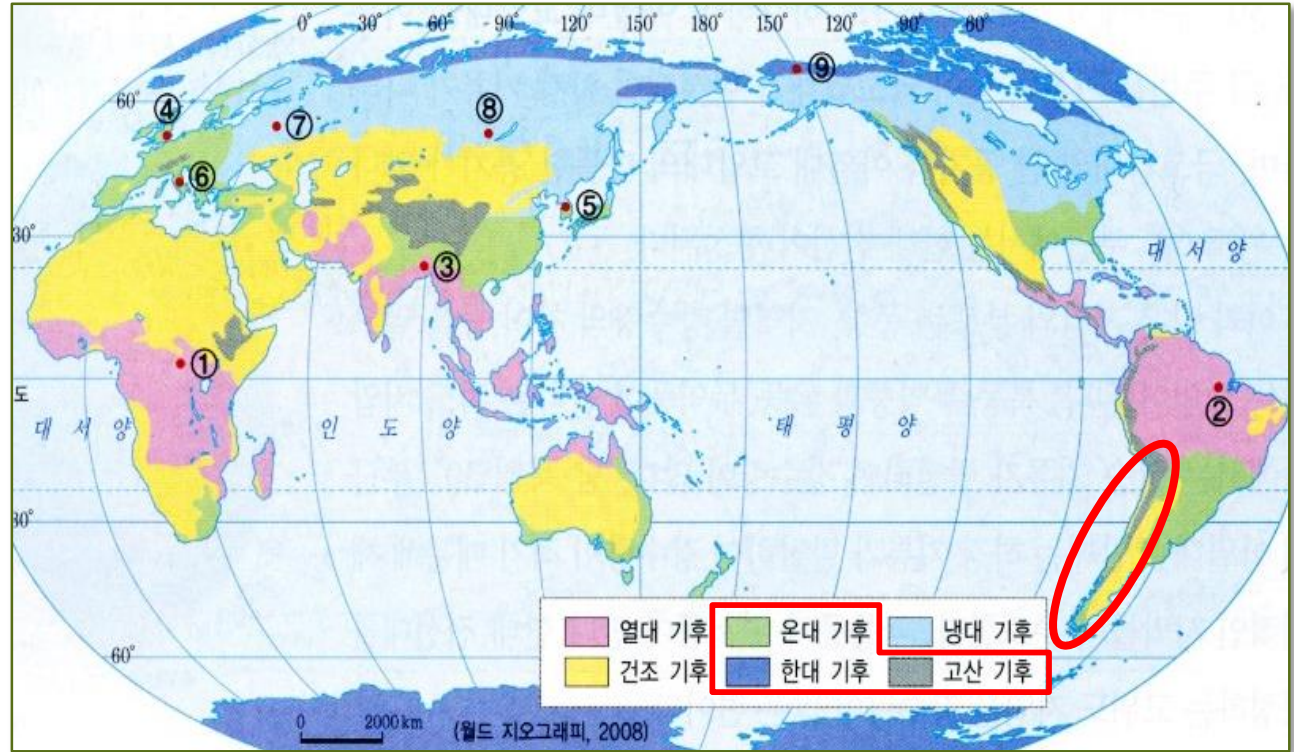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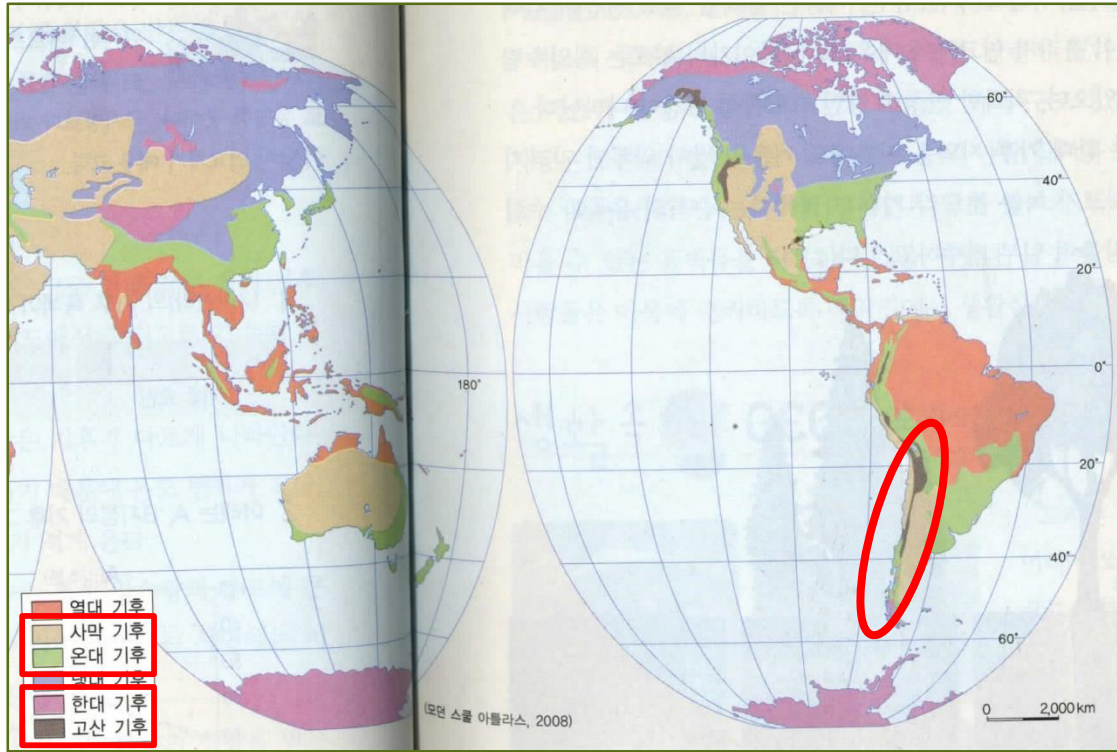


## ■ 주제도\_기온 및 강수량



! 칠레의 연평균 기온은 10~20°C 이며, 연 강수량은 0~2,000mm, 연교차는 0~10°C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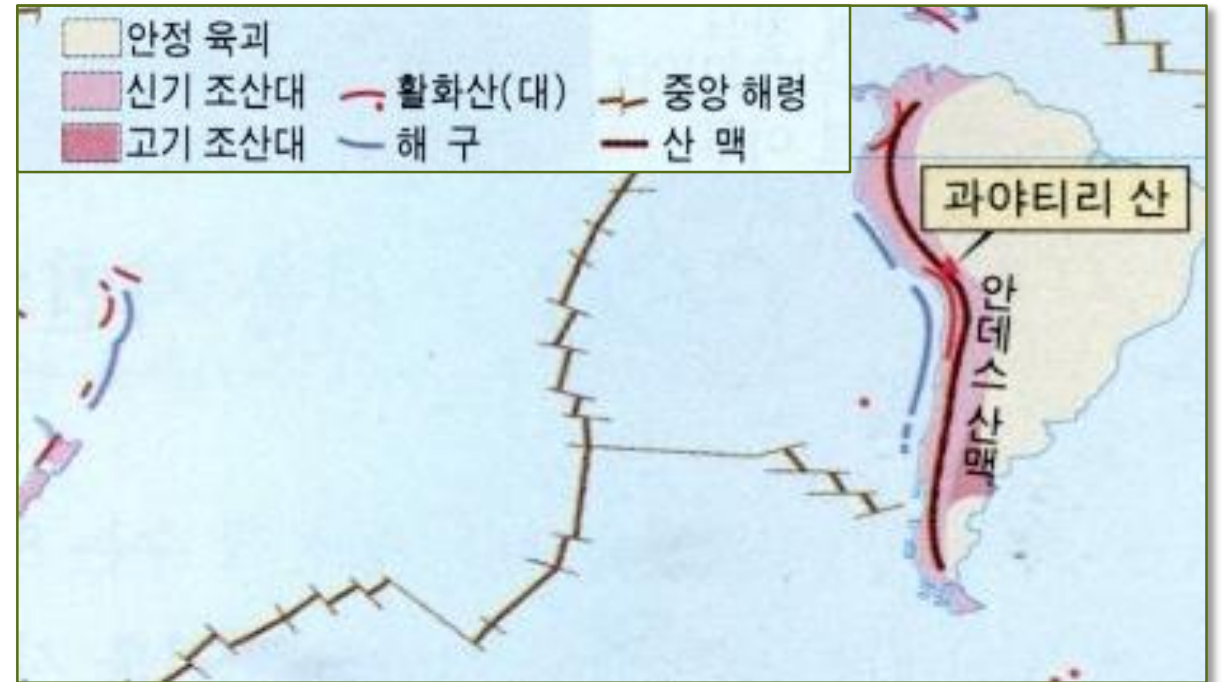
## ■ 주제도\_기후



! 칠레의 기후는 고산기후, 사막기후, 온대기후, 한대기후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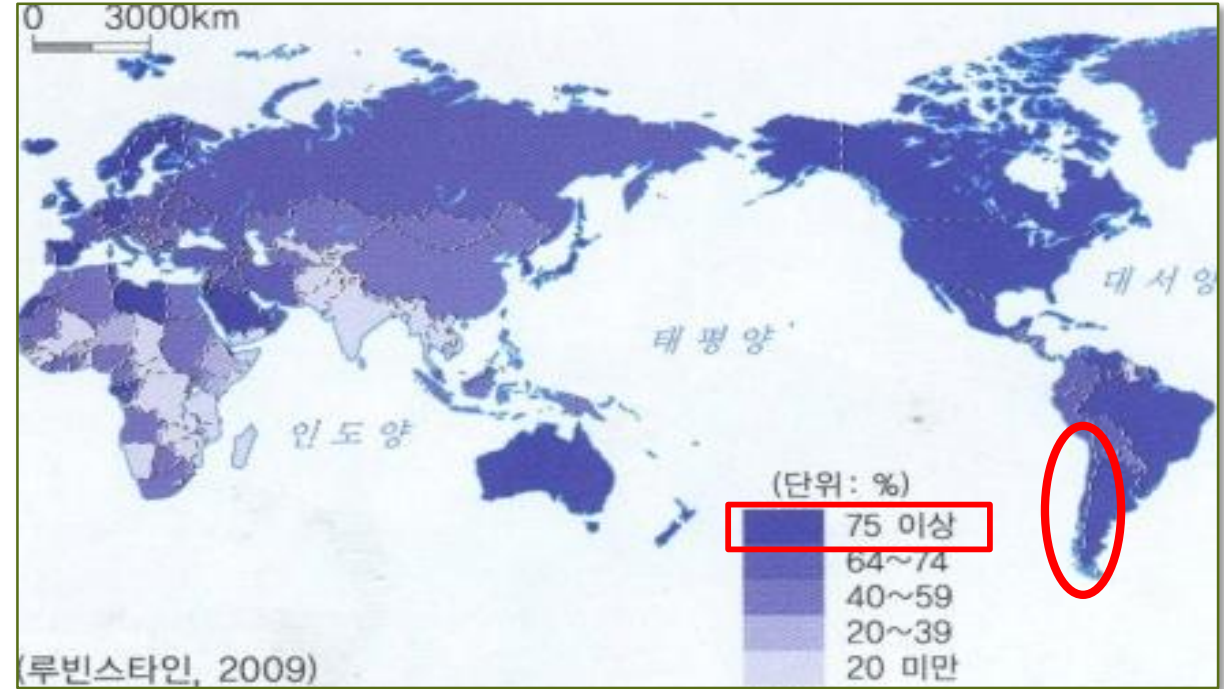
## ■ 주제도\_산지



## ■ 주제도\_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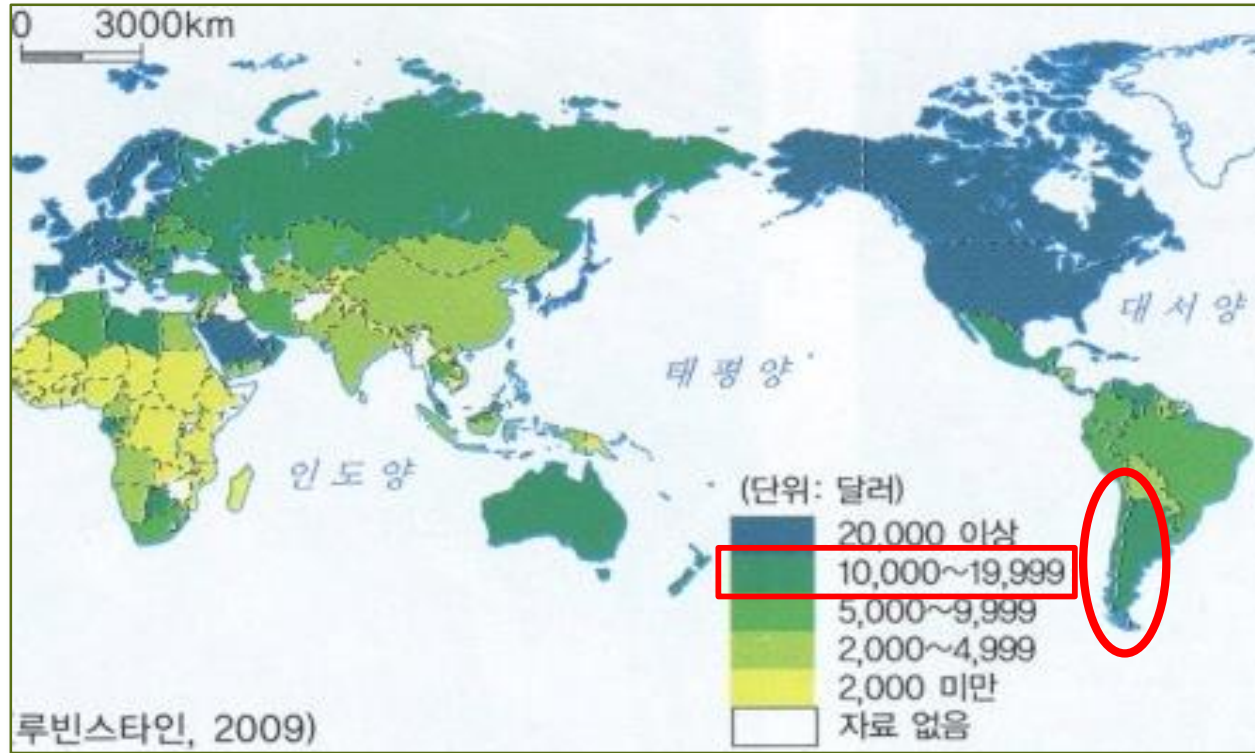


## ■ 주제도\_도시화율





## ■ 주제도\_1인당 국내총생산



## ■ 도시경관



유럽풍의 도시 경관(칠레의 산티아고) 도심의 광장을 중심으로 식민지 시대에 조성된 건물과 기념물 등이 많이 남아 있다.

## ■ 오존층 파괴의 피해

### 자료 1 | 오존층 파괴의 피해

칠레에서는 야생 토끼 300여 마리가 방향 감각을 잃고 들판을 헤매다 주민들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이 토끼들은 모두 눈이 멀어 있었고, 같은 지역에서 양과 연어들도 눈이 머는 사태가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햇빛 속의 자외선 증가 때문으로 판명하였다. 그 후 이 지역의 목장에서는 목동들에게 선글라스와 차양 모자를 필수 휴대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미국의 일부 지역 등에서는 매일 저녁 뉴스에 다음날 날씨와 자외선의 강도를 예보하며, 주민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햇빛에 나가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 3. 요약 및 결론

## ▶ 역사부도

- ✓ 스페인 식민지
- ✓ 1818년 칠레의 독립 - 산 마르틴
- ✓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 ✓ 라틴아메리카 통합 연합(ALADI)
- ✓ 크리스트교
- ✓ 2004년 한국과 FTA 체결

## ▶ 세계사

- ✓ 이스터 섬
- ✓ 1818년 칠레의 독립 - 산 마르틴
- ✓ 신항로 개척 당시 스페인 식민지
- ✓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 ✓ 라틴아메리카 통합 연합(ALADI)
- ✓ 메스티소 > 백인 > 원주민
- ✓ 하루 1~2잔의 커피 소비국
- ✓ 영양실조 인구비율 5% 미만 국가

# 3. 요약 및 결론

## ▶ 세계지리

- ✓ 2004년 한국과 FTA 체결
- ✓ 인디오 문명, 잉카제국 일부
- ✓ 온대기후, 건조기후 혼합
- ✓ 남아메리카 국가 연합 / 세계적인 수산국
- ✓ 스페인어 사용국
- ✓ 가톨릭교
- ✓ 스페인계 혼혈, 메스티소가 주를 이룸
- ✓ 경작지, 방목지, 사막 혼합
- ✓ 지중해식 농업, 혼합 농업 지역
- ✓ 서비스업 종사자: 30~60%
- ✓ 인터넷 사용률: 10~50%
- ✓ 도시화율: 80% 이상
- ✓ 1962년 월드컵 개최국
- ✓ 공업도시: 산티아고
- ✓ 2명 미만의 낮은 출산율



# 3. 요약 및 결론

## ▶ 사회

- ✓ 2004년 한국과 FTA 체결
- ✓ 화산활동 및 분포
- ✓ 아타카마 사막 주변의 사막화 진행
- ✓ WTO / MERCOSUR / APEC 회원국
- ✓ 고산, 사막, 온대, 한대 기후 혼합
- ✓ 연평균 기온 10~20℃
- ✓ 연평균 강수량 0~2,000mm
- ✓ 연교차 0~10 ℃
- ✓ 해발고도가 높은 산
- ✓ 종교: 크리스티교
- ✓ 도시화율: 75% 이상
- ✓ 1인당 국내총생산: 10,000~19,999달러
- ✓ 유럽풍의 도시경관을 가진 산티아고
- ✓ 오존층 파괴의 피해 예시

**칠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 넓은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칠레 관련 내용이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서 소개되기를 희망함.**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mail: [diani84@aks.ac.kr](mailto:diani84@aks.ac.kr)

✓ TEL: 82)31- 709- 6573

